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주제 "청소년활동분야 학계와 현장의 하모니"

- **일 시** : 2012년 12월 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서울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2)
- **공동주관**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준비위원회,
  서울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1부	
14:30~15:00	등 록
15:00~15:10	개 회 식 사회 : 최진이(서일대학교) ▣ 개회사 ▣ 국민의례 ▣ 축 사
15:10~15:30	기조강연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개발 방향” 권일남(명지대학교), 김정률(광진청소년수련관), 김태균(성산효대학원대학교)
15:30~15:40	휴 식
15:40~16:40	주제발표 ▣ 발 표 1 : 김영호(백석대학교) “청소년활동과 육성 개념에 관한 연구” ▣ 발 표 2 : 김종국(송파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현장이 기대하는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 ▣ 종합토론 : 안권순(한서대학교) 박찬열(홍은청소년문화의집) ▣ 질의응답

2부	
16:40~16:50	휴 식
16:50~17:20	창립총회 사회 : 김태균(성산효대학원대학교) ▣ 학회 설립 취지 및 경과 보고 ▣ 회칙 심의 및 추인 ▣ 회장선출 ▣ 신임회장인사
17:20~17:30	폐 회 ▣ 폐회사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학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차

▸ **초청사** ····· 1

▸ **축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 2
홍사단 이사장 ····· 3

1부

▸ **기조강연**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운영과 관련 프로그램개발 방향" ····· 7
권일남, 김정율, 김태균

▸ **주제발표1** "청소년활동과 육성개념에 관한 연구" 김영호 (백석대학교) ····· 25
▸ **주제발표2** "청소년활동 현장이 기대하는 청소년학회의 역할" ····· 41
김종국 (송파청소년수련관)

▸ **종합토론1** 안권순 (한서대학교) ····· 57
▸ **종합토론2** 박찬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 66

2부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 경과보고 ····· 71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회칙 ····· 73

▸ **부 록** 준비위워회명단 ····· 81
애국가(4절) ····· 82

* * *

초청사

청소년지도자분들의 염원을 담아 12월 6일 한국청소년활동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현장청소년지도자의 지도환경 열악성개선과 활동의 전문성 확대라는 과제해결에 앞장서고자 실천하는 기회로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참고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이 살아야만 다른 청소년영역도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지론에 따라 현장과 학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청소년활동학회 창립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활동학회는 청소년활동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온 학계, 청소년활동현장 그리고 교사, 학부모 등 모든 사람에게 청소년활동을 이해시키고 전문성을 유지하며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부디 2012년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학회의 창립과 향후 발전을 위해 큰 지지와 협력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탄생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승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6일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준비위원장 **권일남** 드림

* *

축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차광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다는 대설(大雪)을 바로 앞두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오늘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준비를 위해 대한민국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 · 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청소년활동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새롭게 청소년활동학회가 창립하게 된 것을 청소년단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국제학생학력측정프로그램(PISA)에서 정규 학교 교육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여 얻어지는 협동심 등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는 많이 미흡함과 더불어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활동 활용을 분석해보면 단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36.4%와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5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대학입시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및 입시를 위한 스펙을 쌓으려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더불어 사회환경으로는 성폭력, 학교폭력 등 교육외적인 청소년의 보호환경도 점점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며 향후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이 가일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창립총회를 통하여 기존에 국정의 주요 우선순위에서 변방으로 소외되어온 청소년정책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지도자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더욱 청소년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청소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말로만 아닌 진정 가슴으로 실천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청소년계를 선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축사

흥사단 이사장 **반재철**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신 많은 내외빈께 창립준비위원장이신 권일남 교수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청소년지도자들의 염원인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을 충심(衷心)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흥사단은 청년인재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민족지도자 도산 안창호선생님이 설립한 단체로 1913년 창립된 이래 지난 100여년 간 인재양성과 청소년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도산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창립되게 된 이유가 일찍이 도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소년활동이 살아야만 다양한 다른 청소년영역도 발전을 이룰 수 있기에 청소년지도자들 사이에서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를 이끌어갈 회원분들께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활동 분야는 오랜 역사와 질적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활동 분야 연구와 체계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등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하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로 "청소년활동분야 학계와 현장의 하모니"가 정해준 이유가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준비위원회의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창립총회를 함께 준비한 광진청소년수련관의 관훈인 "청소년은 존재만으로 빛이다."란 말처럼 모든 것의 중심에 청소년만을 놓고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청소년활동현장 지도자분들, 교사와 학부모님들 그리고 청소년활동의 주인공인 청소년 모두가 한국청소년활동학회에 계속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내일이 절기상 대설입니다. 동지를 앞두고 내린 눈이 보리의 이불 역할을 하여 봄에 풍성한 보리를 수확하게 하듯이 오늘 출발하는 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청소년들의 이불 역할을 하여 우리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조력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거듭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학회활동이 풍성하게 꽃피우길 기원합니다.

01부

기조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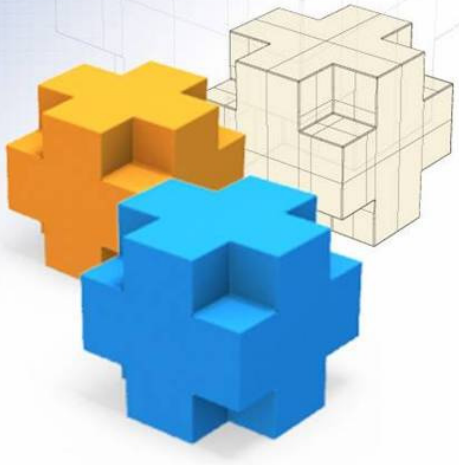
▸ 역량중심 청소년활동운영과 관련 프로그램개발방향

권일남 (명지대)
김정률 (광진청소년수련관)
김태균 (성산효대학원대)

YOUR LOGO HERE

역량중심 청소년활동운영과 관련 프로그램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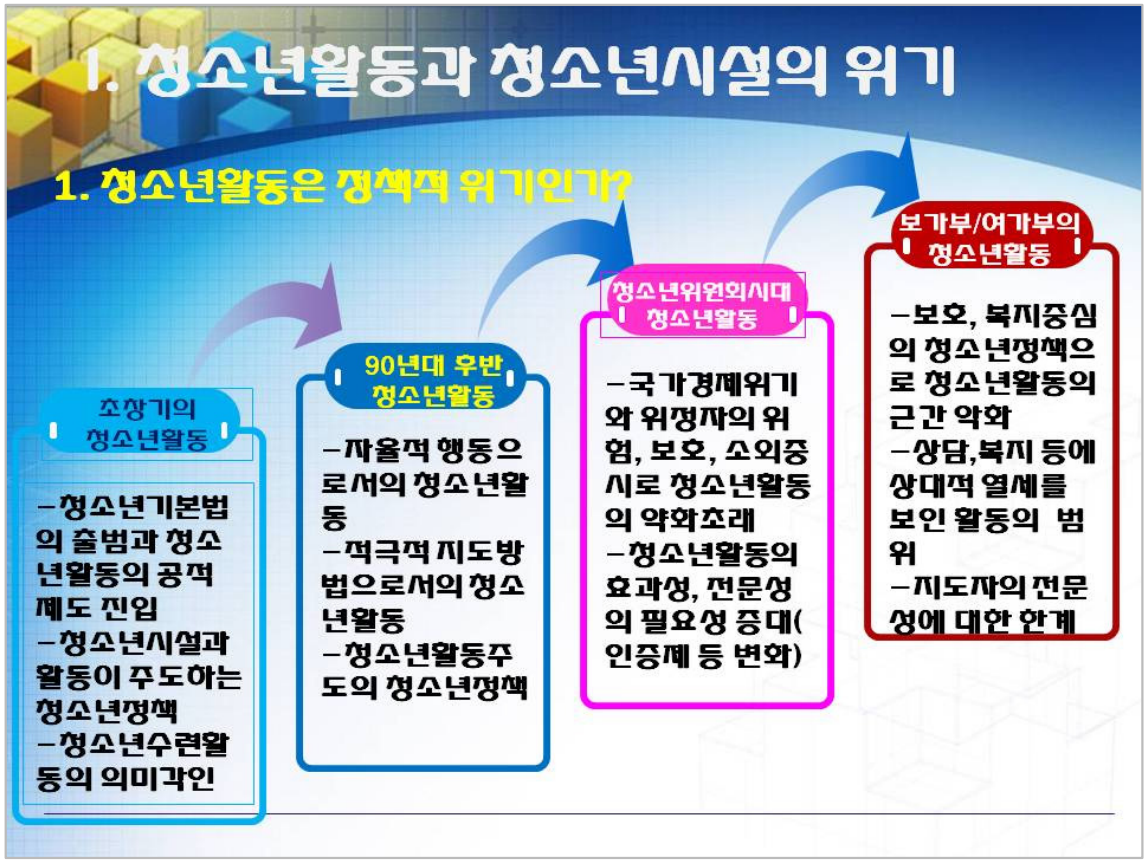
권일남(명지대)
김정률(광진청소년수련관)
김태균(성산효대학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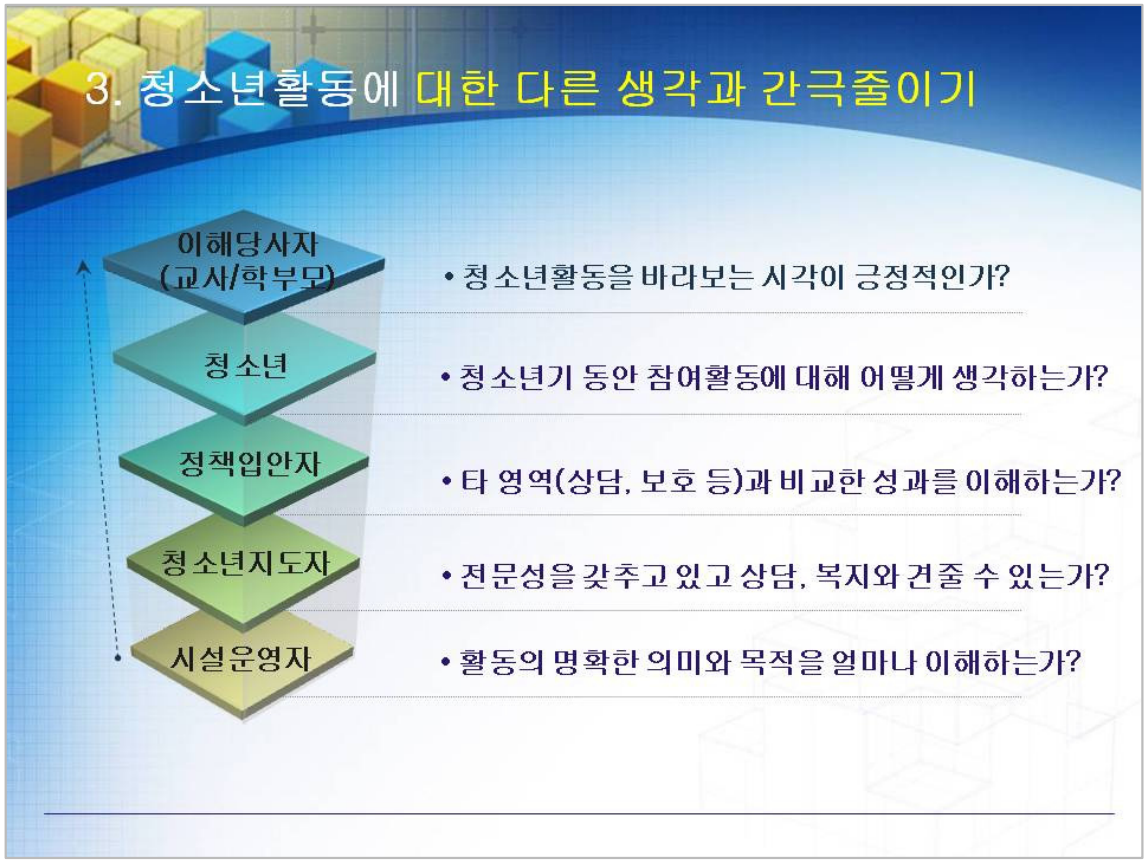
2012. 12. 6일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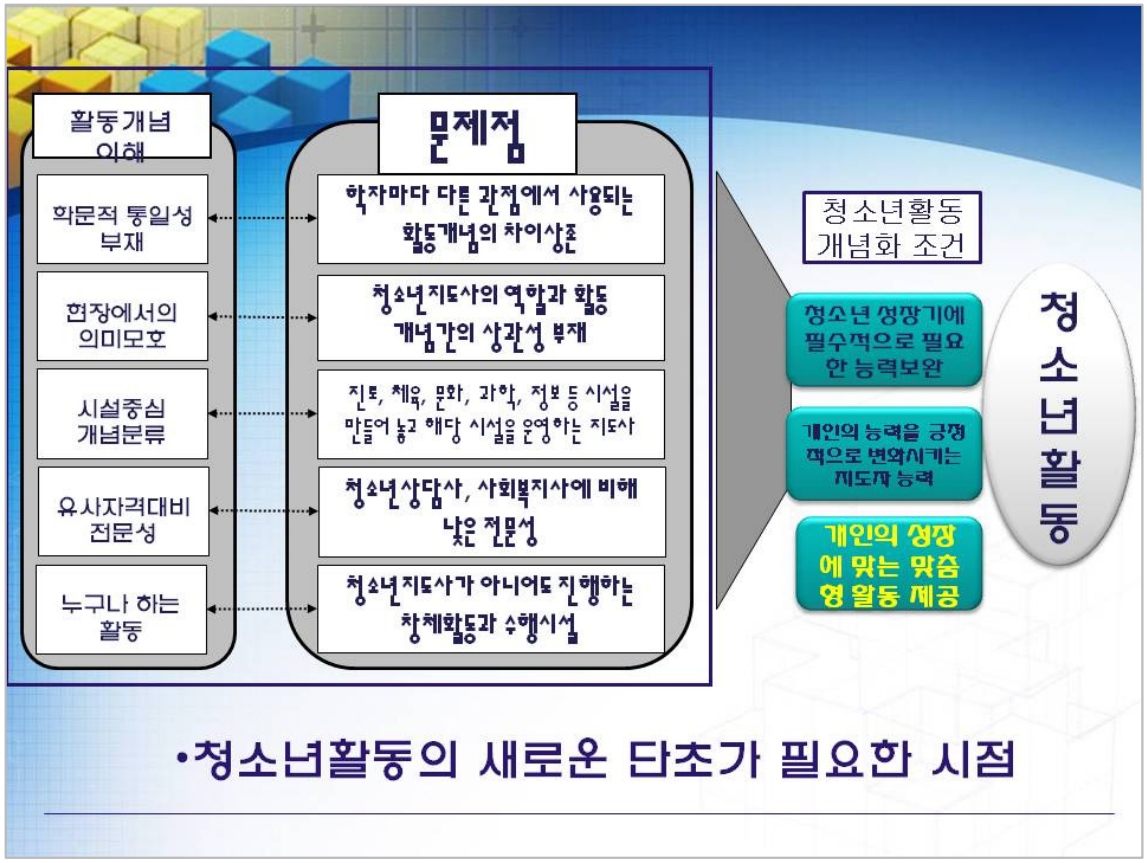
목 차

1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시설의 위기
2 수요자중심의 청소년활동방향
3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개발방향


1.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시설의 위기
1. 청소년활동은 정책적 위기인가?
초창기의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의 출범과 청소년활동의 공적 제도 진입
-청소년시설과 활동이 주도하는 청소년정책
-청소년수련활동의 의미각인
90년대 후반 청소년활동
-자율적 행동으로서의 청소년활동
-적극적 지도방법으로서의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주도의 청소년정책
청소년위원회시대 청소년활동
-국가경제위기와 위정자의 위험, 보호, 소외중시로 청소년활동의 약화초래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전문성의 필요성 증대(인증제 등 변화)
보가부/여가부의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중심의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활동의 근간 약화
-상담,복지 등에 상대적 열세를 보인 활동의 범위
-지도자의 전문성에 대한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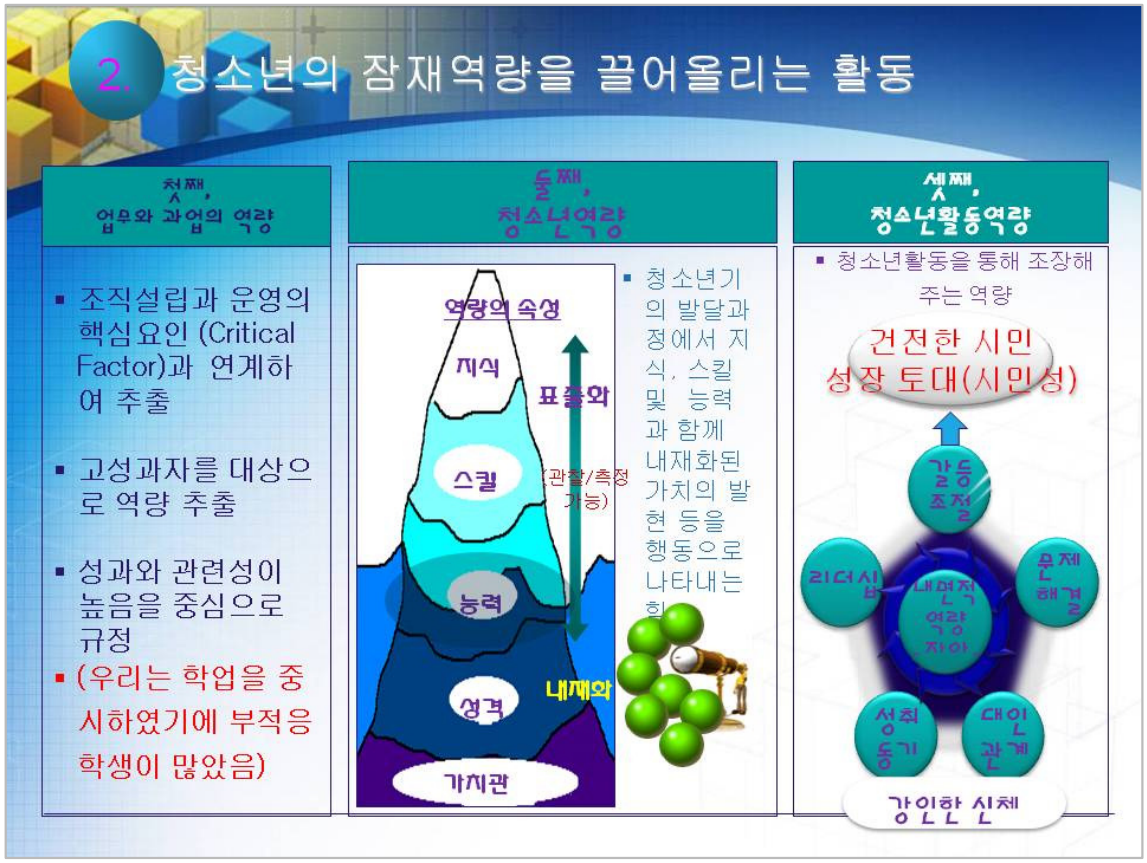
2. 청소년활동과 성과의 간극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활동의 개념적 근거를 만들어 온 토대
•문화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교육환경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
•미래형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등 환경변화의 무대응
•청소년활동의 체질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대두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문제점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결과평가가 만족도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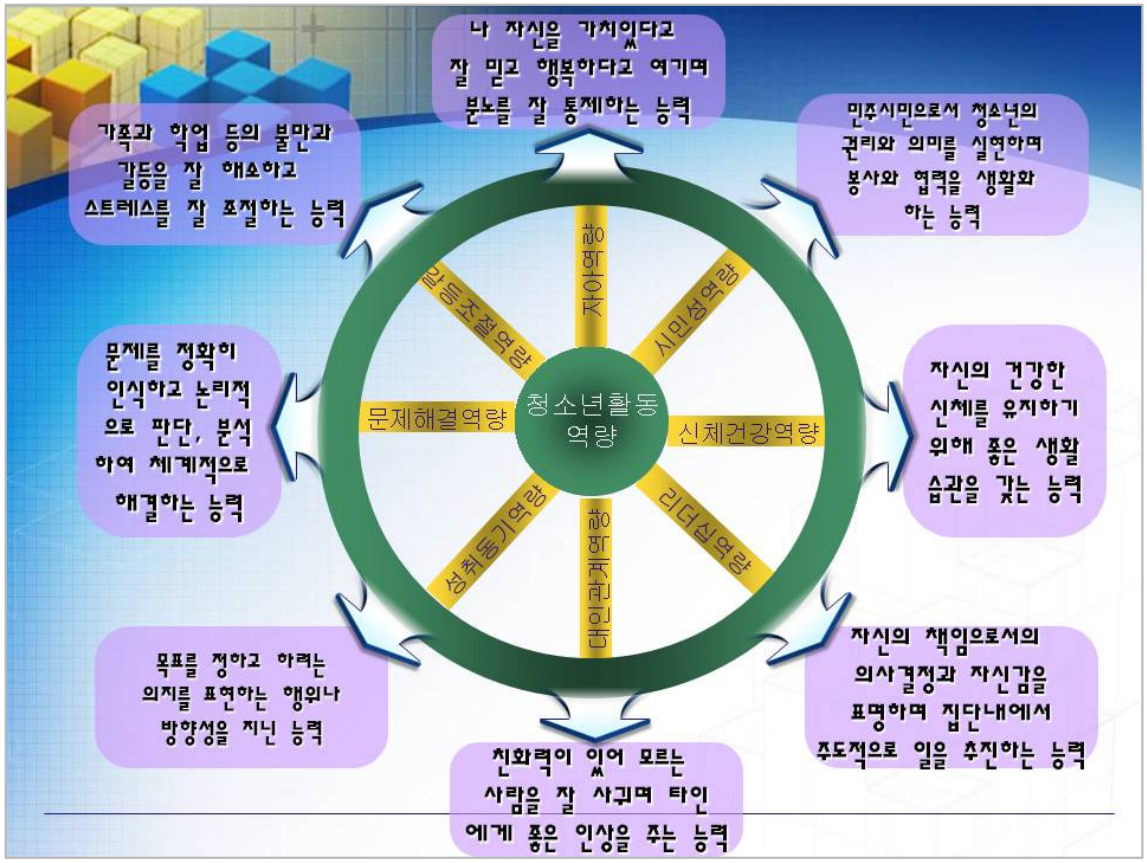

3.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른 생각과 간극줄이기
이해당사자 (교사/학부모)
청소년
정책입안자
청소년지도자
시설운영자
•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가?
• 청소년기 동안 참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타 영역(상담, 보호 등)과 비교한 성과를 이해하는가?
•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상담, 복지와 견줄 수 있는가?
• 활동의 명확한 의미와 목적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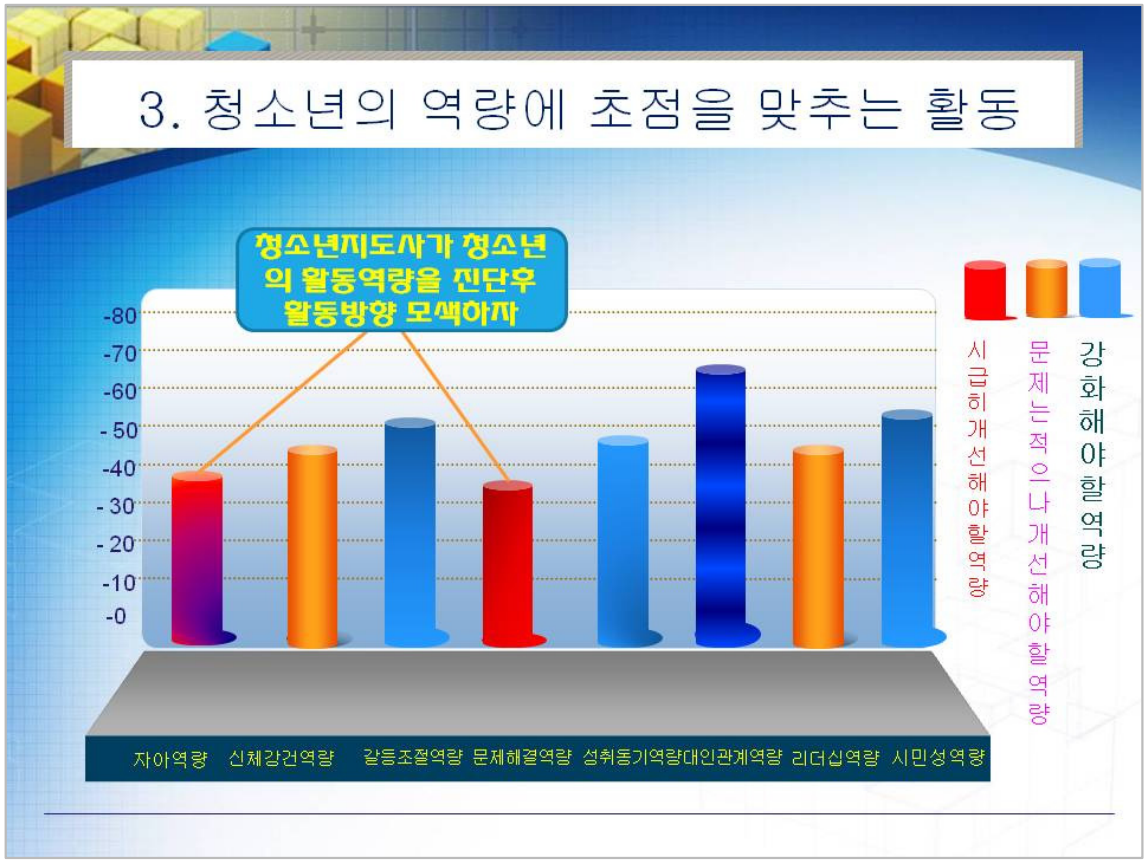

활동개념 이해
학문적 통일성 부재
현장에서의 의미모호
시설중심 개념분류
유사자격대비 전문성
누구나 하는 활동
문제점
학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사용되는 활동개념의 차이상존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활동 개념간의 상관성 부재
진로, 체육, 문화, 과학, 정보 등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에 비해 낮은 전문성
청소년지도사가 아니어도 진행하는 창체활동과 수행시설
청소년활동 개념화 조건
청소년 성장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능력보완
개인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도자 능력
개인의 성장에 맞는 맞춤형 활동 제공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단초가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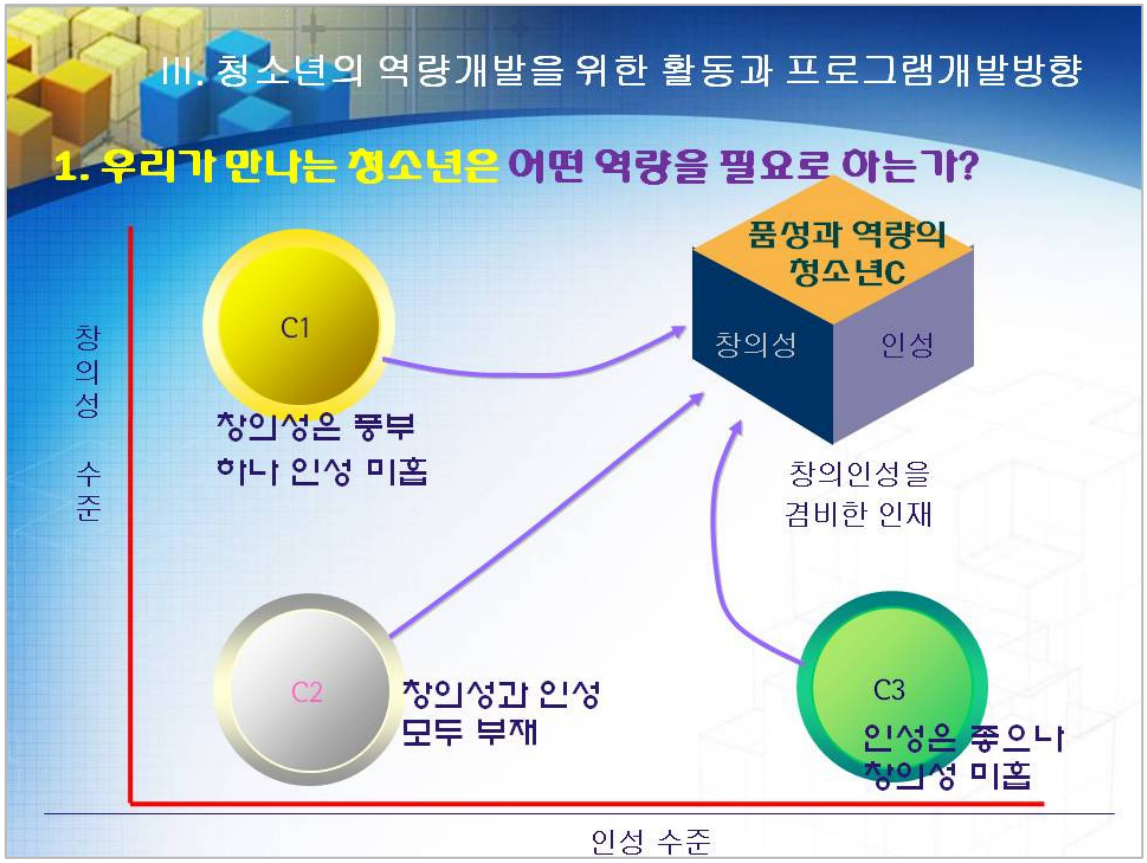
청소년전문가로서의 역할
청소년지도사
1) Contents
2) Solution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사회복지사
3) Planning
4) Marketing
•청소년전문가로서 청소년지도사만 낮은 사회적 지위가 대두
•외부로부터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자각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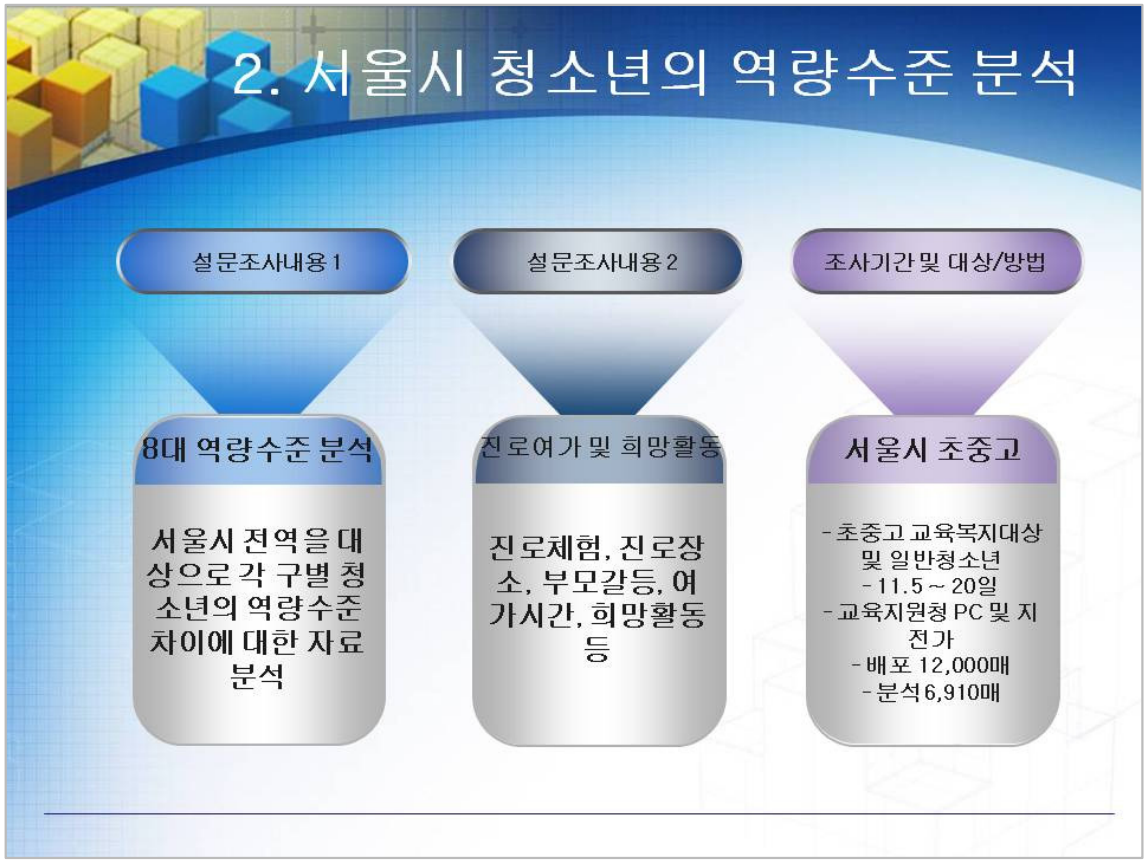
II.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1. 청소년중심의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에 대한 공유가치 명료화
학부모/교사
청소년지도자
청소년활동
청소년
자신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 변화도구
자신이 지도하는 전문분야와 청소년의 성장 간극 줄이기
청소년시설운영자
시설을 통해 획득해야 할 청소년의 성장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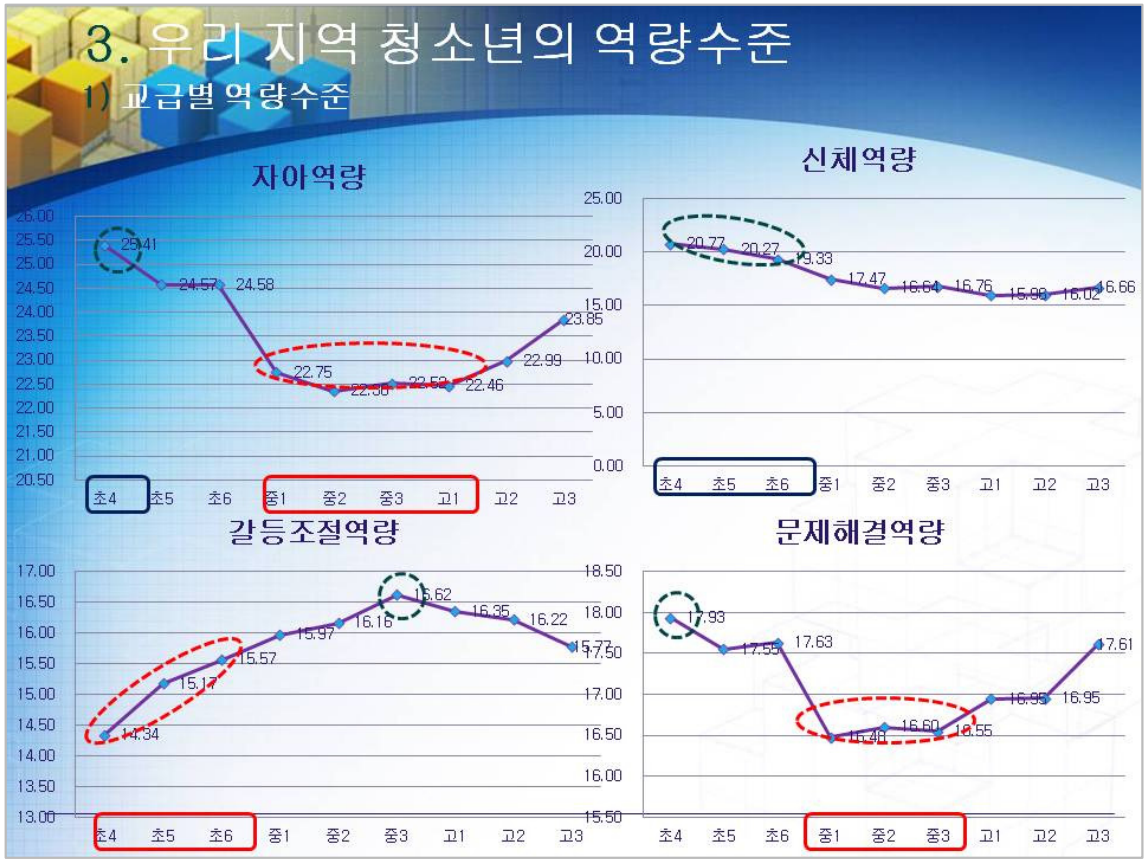

2.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끌어올리는 활동
첫째, 업무와 과업의 역량
조직설립과 운영의 핵심요인 (Critical Factor)과 연계하여 추출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역량 추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음을 중심으로 규정
(우리는 학업을 중시하였기에 부적응 학생이 많았음)
둘째, 청소년역량
역량의 속성
지식
표출화
스킬
(관찰/측정 가능)
능력
내재화
성격
가치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지식, 스킬 및 능력과 함께 내재화된 가치의 발현 등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힘
셋째, 청소년활동역량
청소년활동을 통해 조장해 주는 역량
건전한 시민 성장 토대(시민성)
감정조절
리더십
문제해결
내면적 긍정 자아
성취동기
대인관계
강인한 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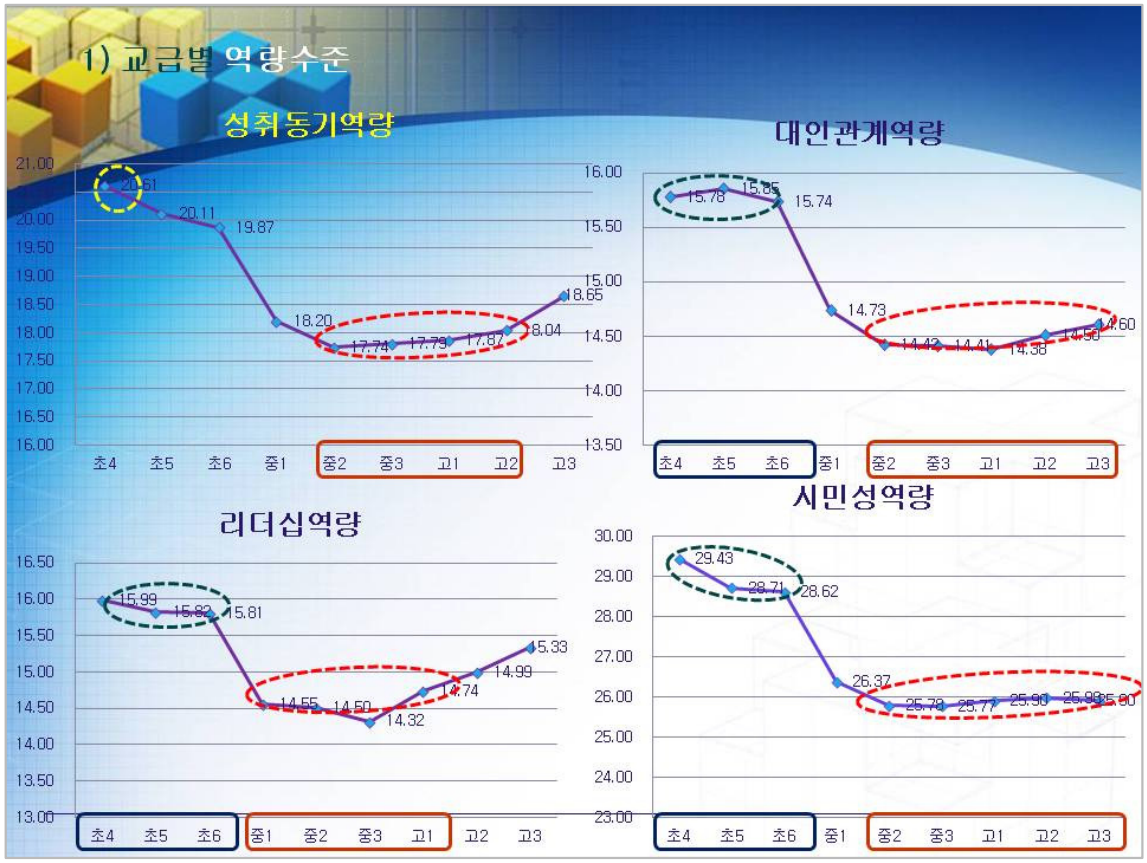

나 자신을 가치있다고 잘 믿고 행복하다고 여기며 분노를 잘 통제하는 능력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의미를 실현하며 봉사와 협력을 생활화 하는 능력
가족과 학업 등의 불만과 갈등을 잘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능력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자신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생활습관을 갖는 능력
목표를 정하고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나 방향성을 지닌 능력
자신의 책임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자신감을 표명하며 집단내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능력
친화력이 있어 모르는 사람을 잘 사귀며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
청소년활동 역량
자아역량
시민성역량
신체건강역량
리더십역량
대인관계역량
성취동기역량
문제해결역량
감정조절역량


3. 청소년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의 활동역량을 진단후 활동방향 모색하자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아역량
신체강건역량
갈등조절역량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역량
시민성역량
시급히 개선해야 할 역량
문제는 적으나 개선해야 할 역량
강화해야 할 역량


III.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개발방향
1.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가?
창의성 수준
C1
창의성은 풍부
하나 인성 미흡
품성과 역량의
청소년C
창의성
인성
창의인성을
겸비한 인재
C2
창의성과 인성
모두 부재
C3
인성은 좋으나
창의성 미흡
인성 수준


2. 서울시 청소년의 역량수준 분석
설문조사내용 1
설문조사내용 2
조사기간 및 대상/방법
8대 역량수준 분석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각 구별 청소년의 역량수준 차이에 대한 자료 분석
진로여가 및 희망활동
진로체험, 진로장소, 부모갈등, 여가시간, 희망활동 등
서울시 초중고
- 초중고 교육복지대상 및 일반청소년
- 11.5 ~ 20일
- 교육지원청 PC 및 지 전가
- 배포 12,000매
- 분석 6,910매


3. 우리 지역 청소년의 역량수준
1) 교급별 역량수준
자아역량
25.41
24.57
24.58
22.75
22.46
23.85
22.99
신체역량
20.77
20.27
19.33
17.47
16.64
16.76
16.66
갈등조절역량
14.34
15.17
15.57
15.97
16.16
16.62
16.35
16.22
문제해결역량
17.93
17.55
17.63
16.60
16.55
16.95
16.95
17.61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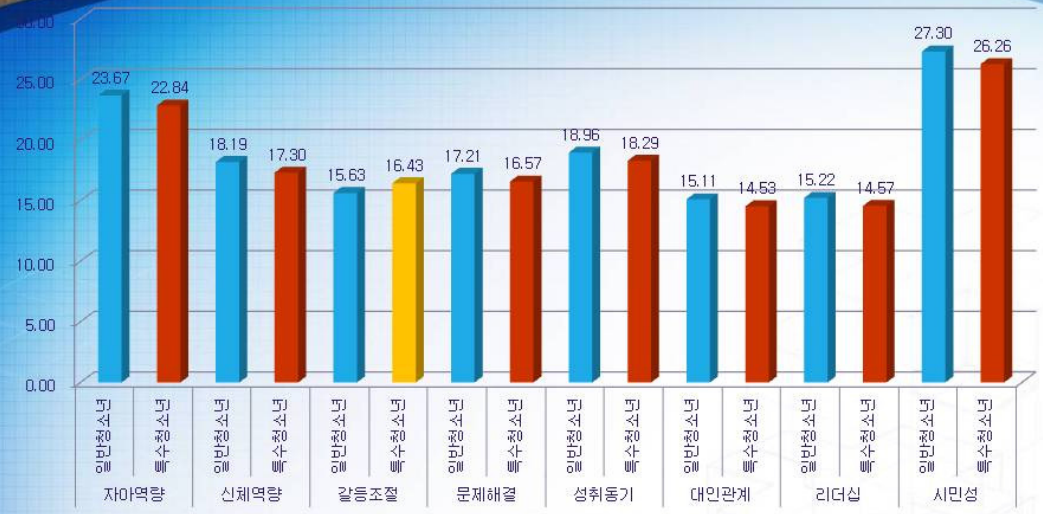

1) 교급별 역량수준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역량
시민성역량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교급별 청소년활동역량방향의 구성
(약점/강점역량 강화방안)
사례1
• 대상별 프로그램의 방향을 구체화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의 방향제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갈등조절역량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자아 자아 자아
문제 문제 문제
동기 동기 동기
대인 대인
리더 리더 리더
시민 시민
약점역량
강점역량
자아역량
신체역량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역량
시민성역량

교급별 청소년활동역량방향의 구성 (약점/강점역량 강화방안)

사례	대상	프로그램구성	약/강점
사례1	초등학생	갈등조절역량프로그램	약점 역량 보완 활동
사례2	중1	자아역량+문제해결역량+성취동기역량+리더십역량	
사례3	중2/중3	자아역량+문제해결역량+성취동기역량+대인관계역량+리더십역량+시민성역량	
사례4	고1	자아역량+성취동기역량+대인관계역량+시민성역량	
사례5	고2	성취동기역량+대인관계역량+시민성역량	
사례6	고3	대인관계역량+시민성역량	
사례7	초등학생	**자아역량+신체역량+문제해결역량+대인관계역량+리더십역량+시민성역량**	강점역량 강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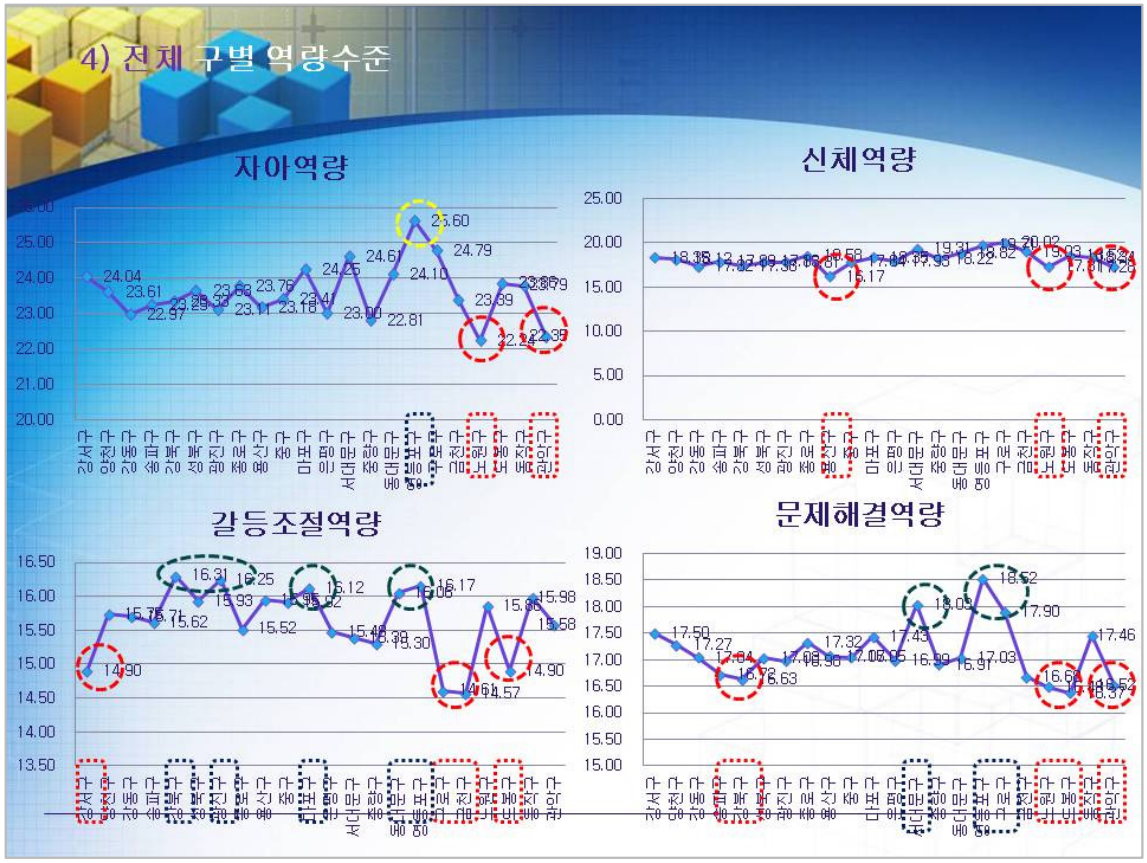
2) 대상(일반과 복지대상청소년)별 역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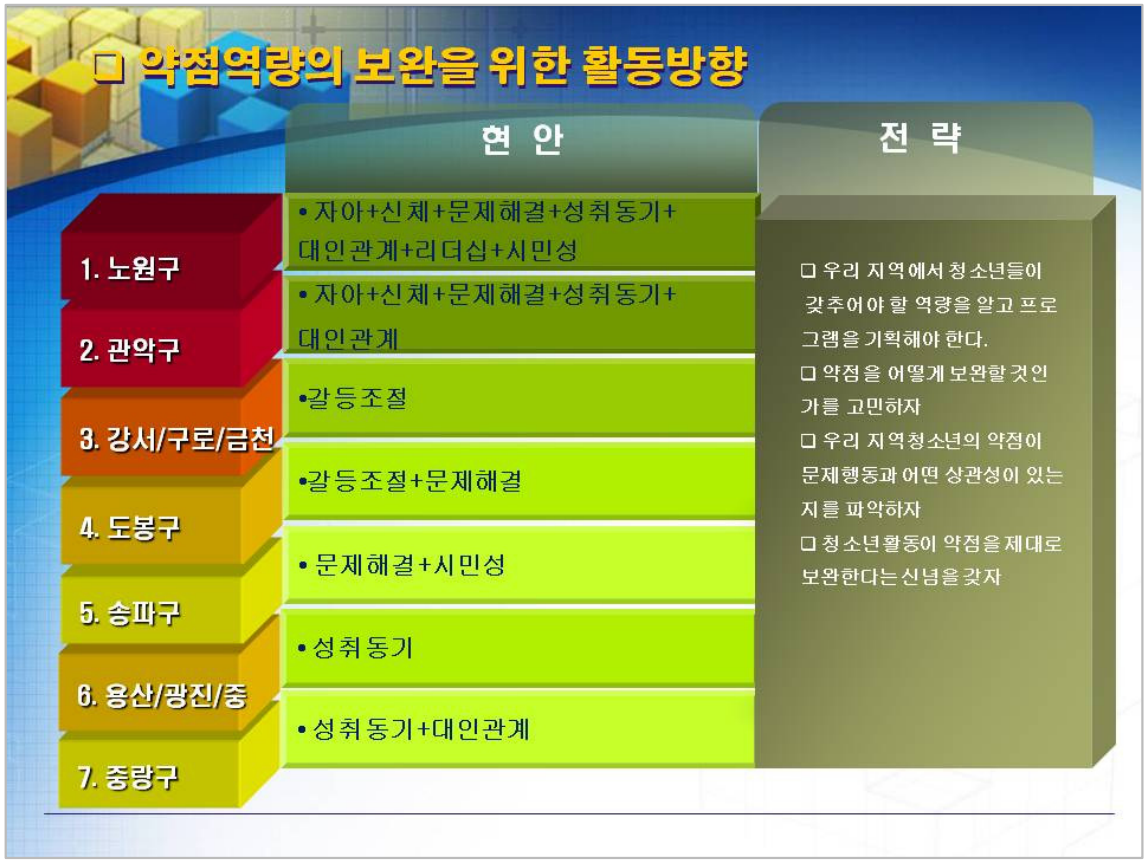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일반청소년에 비해 복지대상 청소년의 역량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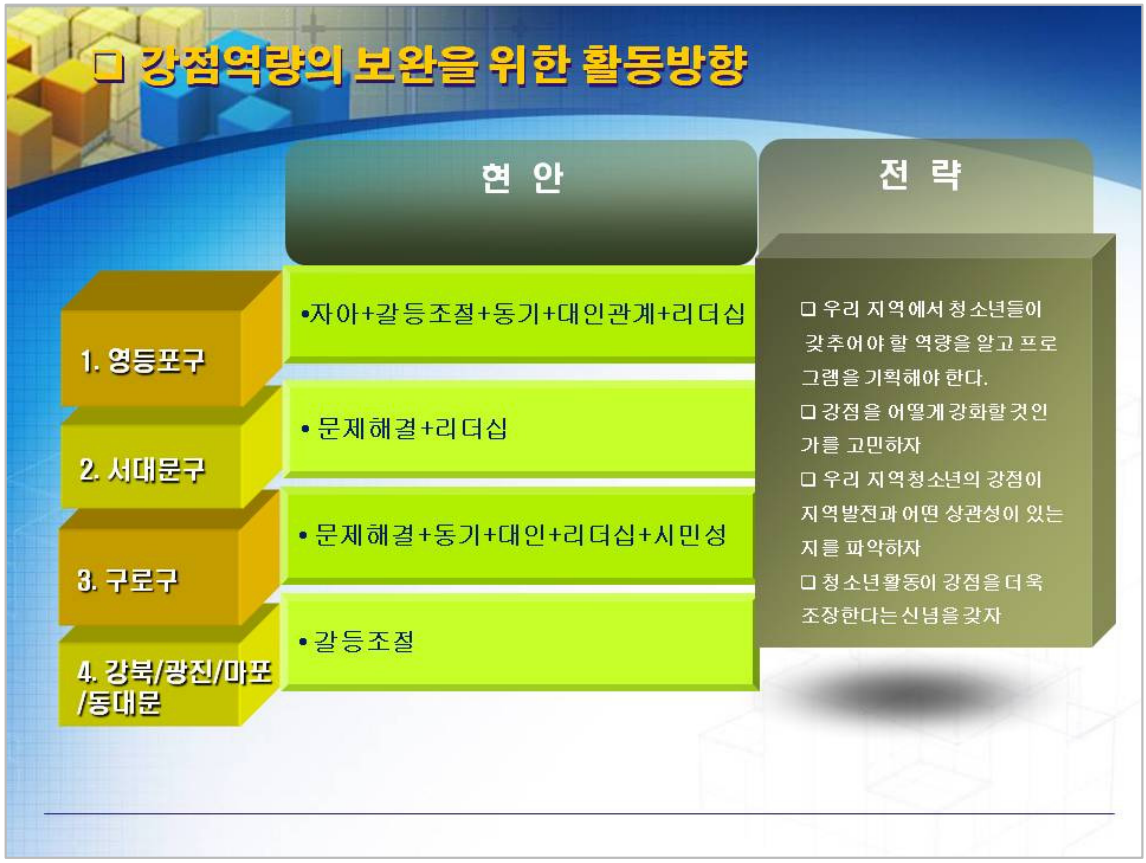
-갈등조절의 경우 오히려 복지대상 청소년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학업관련)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역량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여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인관계, 리더십, 시민성 등은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여학생은 자존감 높이기, 운동, 문제해결, 동기부여 등의 프로그램을, 남학생은 대인관계, 리더십, 시민성 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야 함



역량분류	역량구성	해당 구	역량분류	역량구성	해당 구
강점역량	자아역량	영등포구	약점역량	자아역량	노원구, 관악구
	신체역량			신체역량	동대문구, 노원구, 관악구
	갈등조절역량	강북구, 광진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갈등조절역량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문제해결역량	서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		문제해결역량	송파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성취동기역량	영동포구, 구로구		성취동기역량	관악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
	대인관계역량	영동포구, 구로구		대인관계역량	강동구, 강북구, 용산구,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
	리더십역량	서대문구, 영동포구, 구로구		리더십역량	노원구
	시민성역량	구로구		시민성역량	송파구, 노원구


❑ 약점역량의 보완을 위한 활동방향
현 안
전 략
1. 노원구
• 자아+신체+문제해결+성취동기+대인관계+리더십+시민성
2. 관악구
• 자아+신체+문제해결+성취동기+대인관계
3. 강서/구로/금천
•갈등조절
4. 도봉구
•갈등조절+문제해결
5. 송파구
• 문제해결+시민성
6. 용산/광진/중
• 성취동기
7. 중랑구
• 성취동기+대인관계
❑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알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 우리 지역청소년의 약점이 문제행동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자
❑ 청소년활동이 약점을 제대로 보완한다는 신념을 갖자


❑ 강점역량의 보완을 위한 활동방향
현 안
전 략
1. 영등포구
•자아+갈등조절+동기+대인관계+리더십
2. 서대문구
• 문제해결+리더십
3. 구로구
• 문제해결+동기+대인+리더십+시민성
4. 강북/광진/마포/동대문
• 갈등조절
❑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알고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 강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 우리 지역청소년의 강점이 지역발전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자
❑ 청소년활동이 강점을 더욱 조장한다는 신념을 갖자

구별 청소년활동역량방향의 구성
약점역량강화 맞춤형 활동
• 대상별 프로그램의 방향을 구체화
노원
1) 중학생: 자아+문제+동기+대인+리더십+시민성
2) 고등학생: 자아+동기+대인+리더십+시민성
관악
1) 중학생 : 자아+문제+동기+대인관계
2) 고등학생 : 자아+동기+대인관계
강서/구로/금천
1) 초등 : 갈등조절
도봉
1) 초등 : 갈등조절
2) 중학생 : 문제해결
송파구
1) 중학생 : 문제해결+시민성
2) 2) 고등학생 : 시민성
용산/광진/중구
중고등학생 : 성취동기
중랑구
중고등학생 : 성취동기+대인관계

지역별 핵심프로그램의 구성
지역
약점 역량 강화
핵심프로그램
1. 노원
자아+신체+문제+성취동기+대인관계+리더십+시민성
중1-3을 중점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자기존중감, 가치관, 문제파악, 원인분석, 목표설정, 책임감, 언어표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구성 요망
2. 관악
자아+문제+성취동기+대인관계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아정체감, 자기존중감, 가치관, 문제파악, 원인분석, 목표설정, 대인의사소통, 인간관계강화, 대인이해 등의 프로그램 구성
3. 강서/구로/금천
갈등조절
초등학생을 위한 갈등조절, 학업스트레스 해소, 부모와의 관계개선, 스스로 갈등관리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4. 도봉
갈등조절+문제해결
초등 및 중1-3을 대상으로 갈등조절, 학업스트레스 해소, 부모와의 관계개선, 스스로 갈등관리와 문제파악, 원인분석 등의 프로그램 구성
5. 송파
문제+시민성
중1-3을 중점으로 하되 고3까지를 대상으로 문제파악, 원인분석, 관계개선, 사회성, 지역사회참여, 봉사정신 함양 등의 프로그램 구성
5. 용산/광진/중
성취동기
중1-고3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중2-3을 대상으로 동기유발, 성취지향적 사고, 학습실행력 등의 프로그램 구성
6. 중랑
성취동기+대인
중1-3을 대상으로 동기유발, 성취지향적 사고, 대인의사소통, 관계형성, 대인이해 등의 프로그램 구성

노원/관악(예시)
역량활동프로그램구성
1 자아역량
•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행복추구
•가치관
•자기통제 및 조절
세부구성요소
• 자기존재/자기수용/사회적귀속/미래계획
•자기신뢰/자기혁신
•가치의식/도덕규준/한국적 자긍심
•긍정적 정서/만족감/행복감
•감정조절/주의집중
2 문제해결역량
• 문제해결
•원인분석
•창조적 사고
•종합적 사고
•설득
세부구성요소
•문제현상이해/원인찾기/해결방법설정/실행
•정보원수용/통찰력/분석대처능력
•비판력/아이디어구상
•사고력/판단력/추론력
•정보수용/메시지사용/수용자이해
3 성취동기역량
• 동기유발
•성취지향성
•학습시행력
세부구성요소
• 내재적동기/외재적동기/동기유발행동
•목표지향성/도전감/목표성취수행방법
•학습욕구/학습태도/자기주도학습능력
4 리더십역량
• 책임성
•언어표현력
•의사결정
•자신감
세부구성요소
•자발적 의사결정/책임수행
•표현력/논리적 조절/유머
•정보탐색/대안생성/결과보고
•수용력/성공적 수행의지/목표달성기대

용산/광진/중구(예시)
성취동기역량활동프로그램구성
1 동기유발
달성목표
• 내재적 동기 : 목표에 대한 내적 열망과 관심
•외재적 동기 : 목표달성을 위한 외적 요구와 기대
•동기유발행동 : 주어진 과제나 목표의 수행관계와 자신감
2 성취지향성
달성목표
•목표지향성 : 학습이나 활동의 행하는 이유
•목표성취의 정서적 태도 : 긍정적 목표성취능력
•도전감 : 과제수행의 도전의식
•목표성취수행방법 : 목표실현방법
4 학습실행력
달성목표
•학습욕구 : 학습수행의 긍정적 능력과 의지
•학습태도 : 자신에 맞는 학습자원의 수용방법
•자기주도적 학습력 : 자기주도적 학습계획과 수행력

YOUR LOGO
HERE
지도자는 역량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세부 내용을 어떻게
청소년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감사합니다

01부

주제발표

▸ 청소년육성 및 활동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

김영호 (백석대학교 조교수)

▸ 청소년활동 현장이 기대하는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

김종국 (송파청소년수련관 관장)

* * * *

주제발표 1

청소년육성 및 활동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

김영호 1)

Ⅰ. 서론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육성 및 활동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 벌써 20년이 넘는다. 그러나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역량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정책, 청소년학의 학문적 정체성 그리고 청소년지도현장 등 여러 분야에서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 및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청소년 지도자들과 국내외 학자들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학적 체계가 정립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학 자체가 관련 학문의 성숙과 범위의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화되기보다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근거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연구자체가 도구화되었기 때문이다(전명기, 2006). 청소년육성 및 활동에 대한 연구도 주로 국가 청소년정책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왔기 때문, 정책의 목표와 집행방법 그리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정책의 대상으로 제한되어 왔다.

공공영역중심의 청소년활동으로 인해 기존에 존속해오던 비영리기관,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의 청소년활동이나 사업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민간영역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사회의 토양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및 현안들을 학교교육중심으로 사유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기존의 근대적인 교육관과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김민, 2007). 이러한 지적은 왜 청소년활동의 현장과 청소년학 연구가 불일치와 괴리가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청소년학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념을 창조하고, 법칙을 발견하며, 건전한 성장을 위한 방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1) 백석대학교 조교수,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12-S19에 발표한 필자의 논문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관한 고찰'을 수정·보완한 것임.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조혜영, 2007). 청소년학은 실천을 염두에 둔 학문이기 때문 연구내용은 현장에서의 청소년지도로 이어져야 한다. 실천적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현재의 청소년현장이란 결국 공공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정책의 기본요소인 소망성과 실천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청소년정책연구의 한 분야가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태생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 넘으려는 일련의 노력이 2012년에 있었다.[2] 아직 초보적 단계지만 이런 노력들이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학문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한 육성 및 활동의 대상이자 주체인 청소년의 삶이나 거시적으로 우리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간 정부주도로 생산된 정책에 따라 학술적인 토론이나 담론 없이 따라가기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먼저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있다. 공공과 민간 영역 등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관한 사항, 청소년지도자의 참여여부, 청소년육성과의 관계, 청소년활동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그동안 간단히 논의되었거나 여러 이유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모든 주제들을 동시에 다루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학문적인 엄격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는데 연구자의 능력과 물리적인 한계 등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한계와 이유로 본 논문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연구논문, 단행본 그리고 청소년관련 정책자료 등 문헌을 통하여 그간 논의되었던 청소년육성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고, 육성과 활동의 개념을 정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존연구의 검토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많은 국내 청소년관련 학자들과 활동가들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지만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권일남, 2011). 또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은 우리사회의 역사적 현실로 인해 청소년육성의 개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편의상 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육성도 함께 그 범위를 넓혀 청소년육성 및 활동에 관련한 연구에서 각 연구자들의 청소년육성 또는 활동에 대한 개념이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영승은 청소년육성(Youth Fostering)의 개념을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에서 배양한 지적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이러한 능력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익한 여건을 조거하거나 유해한 요인을 개선함으로서 德·知·體를 고루 갖추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조영승, 1998). 청소년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이 사회와 자연 속의 수련터전에서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체험과 숙달의 방법으로 수련활동을 전개함으로서 덕성을 함양하고, 감성을 계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camp activities)은 청소년들의 도덕적 능력함양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연구 세미나,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태동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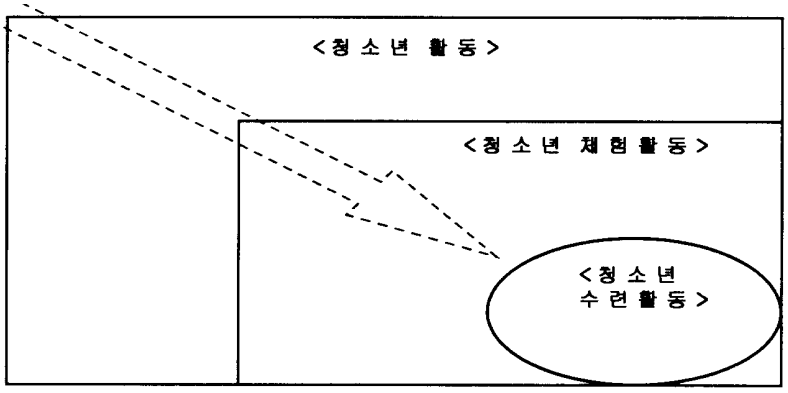
청소년육성의 적극적 기능으로 청소년복지·보호 등의 기능은 청소년육성의 보완적 기능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camp'의 의미는 텐트를 치는 야외와 같은 상식적 장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회 안의 생활권이나, 야외의 자연권에 있는 일정한 요건의 수련거리, 지도자, 수련터전을 통합하여 표현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camping activity'라는 표현은 제도적, 이론적 수련활동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도덕적 능력이라 함은 도덕에 관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 정서, 도덕성,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기능과 덕목을 단련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하여 자제할 수 있고, 이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공동체질서에 조화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도덕적 능력의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의 '고갱이'가 되는 수련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지표로 그가 제시한 수련지표를 살펴보면 개인성 지표와 사회성 지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생명, 정서, 용기 그리고 화합, 민족애, 인류애 등 6덕목으로 그리고 각 지표별 4개의 세부지표로 건강, 안전, 생태, 환경, 예능, 독서, 특기, 상담, 인내, 봉사, 책임, 창의, 예절, 신의, 공정, 준법, 민주, 관용, 전통, 역사, 언어, 종족, 문화, 우주 등 24개를 제시하고 있다(조영승, 1997).

또한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여가활동의 차이는 청소년수련활동이 도덕적 능력함양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는데 비하여 청소년여가활동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를 여가활동, 수련활동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막연하고 상식적인 용어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명확성 등 정책·제도의 본질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론적·학문적 측면에서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체계성을 갖출 수 없는 광범하고 추상적인 관념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조영승, 2004).

이광호(2003)는 〈그림-1〉과 같이 청소년활동, 청소년체험활동 그리고 청소년수련활동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수련활동은 당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림-1〉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과의 관계



자료 : 이광호(2003), '한국청소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의미 변화와 전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1호

이후 이광호(2010)는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을 지난 20여 년 간 법적으로 청소년육성으로 명명된 청소년사업(youth work)의 주요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사업은 핀란드의 법적 규정과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의 여가시간, 임파워먼트, 성장과 자립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성을 함양하고 세대 간의 상호 관계를 증진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을 청소년육성정책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 까지 청소년활동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의한 범위와 분류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변변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학교교육이나 공교육 대 청소년활동'의 관계를 청소년에 대한 커다란 공교육의 틀에서 '학교교육 대 학교 밖 청소년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다양한 교육 형태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생활관리 능력함양' 을 주요목표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조영승의 입장과 비교해 보면 두 학자 간 학교교육과 청소년교육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영승은 청소년육성을 청소년학교교육과 본질적 성격을 달리하며 그 특성은 청소년수련활동에서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다. 즉, 청소년교육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지적능력개발에 관계하는 敎는 주로 학교교육이 담당하고, 청소년의 체험을 통한 도덕적 능력의 함양에 관계하는 育은 학교 밖의 다른 교육부분에서 보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인격적 품성과 이를 실천하는 기량을 함양하는 청소년교육을 학교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공동체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교육의 양대 축으로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과 사적 주체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 아니라 국가정책은 소일거리제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실행하기 힘든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교육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조영승, 2008).

이동연(2005)은 청소년육성의 핵심 개념인 수련활동에서의 '수련'이란 용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 용어는 청소년들의 감성에 적합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으므로 용어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문화권 등 보호받을 권리를 청소년기본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문화진흥위원회로 기능 전환하는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육성이나 수련활동의 개념을 청소년문화지원이나 문화 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육성'이란 용어를 육성이 가지는 일반적인 이미지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용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행과 청소년의 자율성 보장을 함께 추구하는 정책용어이며, 청소년세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역사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조영승(2006)의 입장과 다르다.

전명기(2006)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이 현재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면서 독립적인 사회성원으로 이행해가는 시기에 필요한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영향력을 가지며 건전한 사회성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기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이러한 청소년 자신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성인들의 동반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그간 청소년의 참여, 동등한 지위, 시민적인 소양 등의 관점이 새롭게 접목된 것으로 보여 진다.

기존의 수련활동에 대한 법적 정의에 나타난 문제점을 청소년을 위한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활동과 청소년 스스로가 행하는 활동을 혼동한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지역사회에서 여가활동, 지역사회에서의 비조직적 능동적 활동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요소가 수련활동의 개념을 정의할 때 배제되었음을 지적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논의를 정책의 범주 안에서 고찰하고 청소년정책사업으로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의 의미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보편적 이해나 관심에 기초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청소년활동은 자율적인 참여와 성인-청소년의 진정한 교류소통을 전제로 한 청소년의 활동(by youth) 또는 청소년에 의한 활동(youth-initiated activity) 그리고 청소년지원활동(for youth) 또는 성인에 의한 활동(adult-initiated activity)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기존의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사업(청소년활동, youth work)으로 확대해석함으로서 발생할 개념화의 어려움이 있다. 결국 적극적인 청소년개발의 입장에서 청소년육성이란 용어를 위에서 정리한 청소년활동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청소년정책을 수행하자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길임주(2009)는 미국의 청소년활동은 야외체험교육의 형태를 띠고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긍정적 개발에 목표를 두고 국가사회적으로는 민주시민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이전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이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정이후 청소년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본다. 이어 청소년활동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은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즉, 학문적 논리성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전개되기보다 정책적 의지에 의해 출발했기 때문 2004년 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이 수련활동중심에서 상위개념으로 확장되면서 개념적인 혼선을 가져온 것이라 지적한다.

진은설·임영식(2009)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각 연구에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활동참여에 대한 다른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국내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유사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데, 이는 외국의 정의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주장한다. 이들은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Pittman의 긍정적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Benson의 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s)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청소년활동의 경험은 무엇인가를 현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위해 그 참여자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시간적으로 고려하여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구조화된 활동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

발달과업과 연계하여 청소년활동을 정의하고 있는 김경준(2004)은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활동의 목표나 과제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발상에 기초한 개념으로 '실생활에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반 체험중심활동'으로, 김진호(2007)는 청소년활동의 사전적의미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동이나 작용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또한, 청소년발달과업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작용으로, 박정배(2010)는 청소년활동이란 실생활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활동으로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

권일남은 권일남·김소희(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특별한 용어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권일남·조미영(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은 능동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체험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은 공동생활의 태도와 기술을 학습하고 사회적 적응력 향상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으며, 행동내성(行動耐性)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소년활동은 경험을 통해 학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발달과업, 법적인 측면 그리고 기타 체험적 가치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모두를 유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국자자원으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활동으로 규정함(권일남 외, 2011)으로서 그 개념이 청소년육성을 청소년개발관점에서 보고 활동의 개념을 기존 육성의 개념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한다.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체험적 활동을 의미하며 법적인 활동을 포함하며 비자발적인 활동뿐 아니라 자발적인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다만 목표자체가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수단으로, 책을 통하여 얻는 지식보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를 이해하고 타인을 도와주며 자신의 의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권일남 외, 2008).

또한, 권일남은 교육학적 입장에서 특히 발달과업 그리고 최근에 논의 되고 있는 역량개발이란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에 접근한다. 활동체험이 개인 발달과정에 효과적인 요소인 역량증진의 측면에서 역량의 요소인 자아, 성취동기, 문제해결, 대인관계, 갈등해결, 리더십, 신체건강, 시민성 등의 성취를 이룬다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권일남 외, 2011). 또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해소, 의사결정력, 성취동기, 문제해결력, 갈등관리, 대인관계개선, 사회성증진, 기타활동주도성 등 9가지 영역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권일남, 2007).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얻게 되는 역량을 자아역량, 갈등조절역량, 문제해결역량, 성취동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역량, 신체건강역량, 시민성 역량 등 9가지 영역 36개 지표로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으로 청소년중심의 활동부재와 효과성에 대한 제공미흡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소년활동의 개념이 역량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국가가 공공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이러한 역량요소를 갖춤으로써 취약 및 위험요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예방적 요소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며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을 증진시켜 국가인재양성에 중요한 기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유성렬(2011)은 청소년역량을 생활역량으로 의사소통,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율성, 시민성 등 5가지 영역으로, 미래역량으로 지식정보기술 활동, 종합적 사고력, 진로개발 등 3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 즉, 청소년활동의

필요성과 존재 당위성에 대한 질문에 가장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을 역량함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조영승이 제시한 수련거리의 지표와 비교가 되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실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청소년육성정책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계법규, 역사성 그리고 목표에 대한 근접성 그리고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보고 있는 학자로는 청소년활동을 교내 외 생활권 및 자연권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중심 활동으로 정의하며, 청소년활동을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서의 차이를 교육정책에서는 교과 외 교육활동으로 보고,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천정웅·김정주(1999),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성장발달에 필요한 활동으로 보고 균형적 성장을 위한 교육적 활동(수련활동)과 여가 및 문화활동까지 포함하여 국가정책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태익(2003) 청소년활동을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전인교육을 위해 현실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보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꼽고 있는 최형임 외(2012) 등이 있다. 김호순·변윤언(2006)은 제도적으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한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의 부조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조남억(2011)은 1964년-1984년까지 청소년활동정책의 부재 시기, 1985년-2004년까지 여가활동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 전개기, 2005년 이후 청소년역량개발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의 태동기 등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의 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정책의 변화를 위하여 청소년 존재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청소년활동이나 기존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이거나 추가적인 활동으로써의 청소년활동에서 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활동 개념이나 용어적 한계를 넘어 좀 더 포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호환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청소년역량개발활동은 청소년활동의 상위개념으로써 또는 청소년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사회 속에서 협력과 소통의 더 큰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소년육성과 활동의 관계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청소년활동의 상위영역으로 또는 같은 영역으로 보는 시각과 이 둘을 청소년사업으로 대치하려는 시각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면, 1) 덕목 중심으로 보는 시각 2)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생활관리 능력함양입장에서 보는 시각 3) 적극적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에서 보는 시각 4) 문화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 5) 발달과업과 연계하여 보는 시각 6) 역량개발 중심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7) 정책·제도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Ⅲ. 청소년육성 및 활동 개념 정립시 고려사항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활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에 기초하여 공공영역에서 청소년육성이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때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과 정책목표의 차별성, 청소년학의 실용주의적 특징, 그리고 정책목표로서의 타당성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학교교육의 교육목표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육성정책의 목표는 민주시민의 육성이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달리 할지라도 차별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실용주의적 응용학문이란 청소년학의 특성과 그간 국가 주도의 청소년활동정책으로 형성된 청소년활동 현장의 역사성으로 인하여 용어를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설명칭, 수련활동 등 법적·제도적인 혼란 등 현장과 괴리현상이 예상되며, 스스로 개념을 정의할 수 없는 용어를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역량중심의 청소년활동 내용에 대한 가치와 타당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학교교육과 정책목표의 차별성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의하여 2011년8월9일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 361호에 의한 초·중등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능력의 바탕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등 네 가지로 제시한다.

학교교육목표 중 하나인 건전한 민주시민의 육성은 청소년육성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기관에서는 수련활동을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등에서 수련거리를 가지고 수련지도자와 함께 행하는 체험활동 일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10). 이러한 수련활동의 정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외하면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교육정책의 목적과 청소년육성의 목적이 동일하게 민주시민의 육성에 있음과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학생과 청소년이 동일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같은 정책목표와 대상을 중심으로 다른 형태의 정책수단을 적용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 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조영승의 덕목 중심의 청소년활동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 등만 제시하여서는 청소년육성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낼 수 없다. 학교교육에서 부족

한 체험활동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 즉,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내용의 제시가 필요하다. 위에서 검토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입장 중 조영승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활동, 권일남의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 그리고 이광호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생활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활동 등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정말 현재와 미래의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청소년과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에 기인한다고 본다.

교육을 국가경쟁력의 축으로 보는 시각, 청소년을 국가성장의 잠재적 동력으로 보는 시각 등은 교육이 경제 성장에 별달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생물, 역사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런 과목이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더 나은 시민으로 길러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2007년 47%로 우리나라의 절반정도인데 교육의 생산성 향상효과도 낮은 실정인데 초·중등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은 이유는 이 시기의 교육이 자아실현, 모범시민 양성, 민족 정체성 같은 것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 한다(장하준,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영승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활동은 아직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경제적 논리가 아닌 최소한 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학습이 청소년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유의미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련거리의 덕목과 수련지표 그리고 수련거리의 예시로 제시된 수련활동의 명칭과 내용은 학교교육에 통용되는 명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도덕성 함양이라는 용어가 학교교육의 도덕교과내용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련거리에 대한 현장 적용의 곤란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으로 단순화시키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 즉, 기존의 수련지표를 재정리 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육성의 핵심 내용인 수련지표를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핵심 단위프로그램을 국가가 제시함으로서 정책목표달성과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인증제나 성취포상제 등의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할 때 국가가 제시한 단위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개발하게 함으로써 실행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의 관계는 공교육의 보완재로 자리매김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연방 국가의 경우 청소년사업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개발을 지원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교육으로 규정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NYWAC. 2003) 그리고 교육적 과정으로 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동, 창작활동, 영성개발활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활동, 건강증진 등의 웰빙활동 그리고 국제교류활동 등 7가지 영역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은 스미스(M. Smith, 1988)가 〈그림-2〉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저, 개인 또는 사회적 개발, 복지, 인격형성, 사회성 개발 그리고 영적각성 등의 영역과 유사하다.

〈그림-2〉 청소년사업의 전통영역 'Traditions in youth work'

	레 저	
사회성 개발	인 격 형 성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개발
	영 적 각 성	복 지
운동기반의 청소년사업		전문가 영역의 청소년사업

자료 : Mark Smith(1988), Development Youth Work.

그러나 스미스(M. Smith)는 이러한 6가지 영역이 시대에 따라 강조하는 영역을 달리 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시대에 따라 청소년사업의 주체들이 청소년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강조하는 영역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민간영역에서 실시해오던 사업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또한 현재 학교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수업내용을 분석하여 이들 중 체험활동을 통해 학습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도덕과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덕목을 보면 자주, 성실, 절제, 효도, 예절, 준법, 배려, 책임, 협동, 정의, 애국애족, 인류애 등이 있다(유병렬, 2011). 이러한 내용은 과거 수련지표의 덕목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유병렬(2011)은 도덕과교육론에서 도덕과교육방법으로 직접가치전수방법, 간접적 가치탐구방법 그리고 활동·체험에 의한 가치학습방법으로 구분하고 이 중 활동·체험에 의한 가치학습방법의 기법으로 실천·훈련법, 현장학습법, 덕목실천학습법, 집단수련활동법, 참여적 실천체험활동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으로 정의하면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 즉, 도덕성 함양이란 당초의 청소년육성 목표를 충분히 수행하면서 학교교육과의 관계의 재정립, 보편적인 용어의 사용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라 본다. 수련시설에 방문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각종 행사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연스럽게 도덕적 함양과 관련된 수련거리에 노출되게 함으로서 공공 청소년교육기관인 수련시설의 정체성도 복원하고, 이를 청소년수련시설의 고유사업으로 특정지울 수 있다. 한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발달과업 성취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포함되는 하나의 활동으로 규정하되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반드시 각종 사업이나 활동프로그램에 포함해서 도덕성 함양과 관련된 체험형 기본 수련거리 개발 및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2. 청소년학의 실용주의적 특징

청소년학(Youthology)을 '청소년과 청소년기 현상 및 그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출발점을 제공한 것은 1990년에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다. 영국의 청소년사업과 같이 민간에서 출발하여 국가가 이를 정책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서 정책중심의 새로운 개념을 도출해낸 후 학문적인 논의가 뒤를 이어 시작된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청소년학는 응용학문이며, 실천적 실용주의 학문이다. 학문적 특성을 살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론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그간의 노력 또한 적지 않았다. 한 학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그 학문이 일궈낸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학의 경우,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에 있어 커다란 학문적 기여를 해온 각 대학의 학과목에 대한 영문표기 조차 통일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문적인 입장이나 철학에서 오는 커다란 차이가 아니라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육성 및 활동과 같은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용어 선택이나 사용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신조어의 과잉공급이다. 물론 정책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지는 사람이나 정책과 관련된 연구자들에게 기존의 현상을 담아내고자 하는 열의와 노력을 폄하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정책을 마케팅 하듯이 사용되는 용어는 현장에 혼란과 피로를 가중 시킬 뿐이다. 영업실적이 부진한 점포가 간판과 실내인테리어를 자주 교체한다. 차분히 청소년학이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학은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전쟁과 같은 첨단 IT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청소년을, 자아의식이 형성하기 시작하여 아직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성인이 되지 않은 그리고 아직 부모나 여타 가족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이나 물질적 지원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3. 정책용어로서의 적합성

정책목표는 정책과정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체제변수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미래지향적인 성격, 정통성에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적 성격, 합의를 전제로 한 공통성, 그리고 효과성의 기준이라는 특징을 갖는다(안해균, 1999). 그러나 완전한 합의의 곤란성, 목표의 다양성, 목표의 유동성 등의 저해요인 때문 효과성 측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으로서 청소년육성정책도 그 정책이 가지는 특징 때문에 효과성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

이기봉 등(2011)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개발이란 연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론적 토대를 설명하기 위하여, 체험활동의 결과가 어떤 경로로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의 문제를 동기의 개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동기의 형성이라는 중간목표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동기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청소년의 요구에 맞춘

체험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진행된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인 창의성과 인성계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목표설정이 정책목표로 적정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전통적인 발달심리학의 구분에 따라 인지적 발달과 정의적 발달의 결과로 보고 있다. 창의성발달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지적 영역의 발달특성과 동기, 태도, 흥미, 성격, 도덕성 등의 발달을 포괄하는 정의적 발달특성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한 두 가지 목표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의 복잡성으로 인해 특정의 체험활동을 특정영역의 결과 로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역량의 개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연계도 같은 이유로 어렵다고 한다. 또한 체험활동의 가변성, 창의성의 경우 영역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로'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기와 경험의 축적이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결국 연구자들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가정에서 출발했지만 많은 논의가 요구되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정책 하위영역의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책에서 목표의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계층성, 구체성, 기대의 주체 및 기타 여러 가지 기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되는데(안해균, 1999), 도덕적 함양과 역량개발이란 목표를 이루는 지표들이 정책 하위영역의 목표로 설정가능한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정부의 성과관리제도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의 경우 참여청소년의 수가 사업의 목표로 제시되기도 한다. 활동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다. 이에 청소년육성을 보편적인 용어인 청소년사업으로 전환하여 그간의 청소년활동사업, 복지사업 그리고 보호사업 등으로 구분하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적 영역의 활동에 대한 효과성 검토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거나 활동프로그램별 설정한 목표에 대한 도달 여부를 측정하면 가능할 것이다.

Ⅳ. 결　　론

청소년육성 및 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며 발견된 사실은 청소년활동이나 육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연계하여 도덕성 함양을 중심으로 한 입장,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한 입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생활 능력향상을 중심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긍정적 청소년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

청소년육성이나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 정책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활동이나 청소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그리고 활동의 주체냐 아니면 교육의 대상이냐 하는 문제로 논의가 발전한다. 성인 주도적 관점과 청소년중심관점으로 나뉘기도 한다. 또한 정책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활동의 내용이 역량개발이냐 아니면 도덕성 함양인지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성장동력의 잠재적 자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며 하나의 인격체로 볼 것인지의 문제인 동시

에, 청소년의 행복이 미래의 행복이냐 아니면 현재의 행복이냐의 문제이다. 또한 그간의 청소년활동이 관주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간 청소년육성에 대한 철학적, 정책적 의의와 의미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명칭을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사업은 도덕성 함양을 주창하며 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되었다. 도덕성 함양 또는 청소년육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조금은 촌스럽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뒤쳐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언급하면서 기성세대의 낡은 가치관을 자라나는 세대에 주입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기도 한다. 물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관심, 목적과 포부, 믿음과 태도 등을 말하는 데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적 사고를 하는데 자유롭기를 원한다.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인 청소년사업(Youth Work)으로 사용할 경우, 적극적 청소년개발의 개념에서 제시하는 적극적 청소년개발을 촉진시키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자산의 항목들 - 신체적 개발, 지적 개발, 심리적 개발 및 정서적 개발, 사회적 개발 등의 영역의 지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Stenphen. F. Hamilton & Mary Agnes Hamilton, 2004). 물론 현재 역량에 대한 세부항목에서 이러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의 영역에서 보다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에 대하여 거부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하고. 참 진리인 단 하나의 도덕률은 없다(Louis E. Raths 외, 1978). 그러나 기존의 가치관이 영원 불편하거나 또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별다른 의심 없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 즉, 절대적인 것은 없어도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말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또한 그런 식으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가치문제 또는 도덕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대화식, 문제해결식 방법이 유용하다고 한다. 이러한 학습방식은 학교보다 청소년활동에서 잘 할 수 있는 기법이다.

지난 20년 동안 정말 청소년활동가들이 잘 할 수 있고, 반드시 했어야 하는 사업들을 하지 않은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인지, 공공의 영역에서 기존에 실시된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사업들이 청소년육성의 핵심인 청소년수련활동 기본 이념인 도덕성 함양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역량개발이 갖는 이데올로기적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돌아볼 때이다. 이를 위해 그간 정책시행에서의 혼란과 착오를 보완해야 한다.

A. 메킨타이어(1984)는 권리와 자유의 절대화로 생겨난 다원주의를 그 자체 자유와 권리로 착각하는 것이 현대의 병이라 진단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수 있는 공동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원주의는 가치와 목적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유의 토대를 침식시킬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하는 그의 질문을 바꿔 '우리는 어떤 청소년을 원하는가?' 우리는 오늘의 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사회의 청소년은 과연 행복한가? 학교폭력에 대통령까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우리 청소년활동가들은 학교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며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다. 또한 보다 근원적으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이란 개념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교육학적인,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접근을 통한 인문학적 고민이 진지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 361호.

구태익(2003), '**한국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시설의 변천**',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권일남(2007),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만족도 조사 및 인증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권일남·정철상·김진호·김영철(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학지사.

권일남·김소희(2008), '**청소년수련활동 체험이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제3호, pp. 155-176.

권일남·조미영(2011), '**경험학습모형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경로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제4호, pp.91-114.

권일남(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보고서**',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11-S3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권일남·오해섭·이교봉(2011), **청소년활동론**. 공동체.

길임주(2009), '**청소년활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사례에 관한 한미실태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제4호 pp.66-80.

김경준(2004), **청소년학 용어집**, 한국청소년개발원편, 교육과학사.

김 민(2007), '**한국청소년학의 학문공동체 형성과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진호(2007), '**청소년활동론**', 청소년학개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편, 교육과학사.

김호순·변윤언(2006), '**청소년정책 변화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의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제4호 , pp.103-125

박정배(2010),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배규한(2007), **청소년의 개념과 청소년학의 중요성**, 청소년학개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편, 교육과학사.

안해균(1999),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유병렬(2011), **도덕교육론**, 양서원.

유병렬(2011), **도덕과교육론**, 양서원.

유성렬(2011), **'역량의 개념정립과 역량 개발로써의 청소년 활동'**, 2011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16.

이광호(2003), '**한국청소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의미 변화와 전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제1호, pp.61-74.

이광호(2010), '**한국 사회 청소년사업과 정책의 위기와 과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제3호 pp.25-43.

이기봉 · 김현철 · 윤혜순 · 송민경(2011),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개발연구 I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동연(2005), **청소년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찾기**,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개발원편, 교육과학사

인천광역시교육청(2010), **학생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지침**.

장하준(2009),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도서출판 부키.

전명기(2006), '**청소년활동론 정립을 위한 시론**', 미래청소년학회지, 제3권제2호,pp. 89-118.

조남억(2011), '**한국사회 청소년활동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미래청소년학회지, 제8권제2호, pp.23-42.

조영승(1997), **청소년학총론**, 교육과학사.

조영승(1988), **'청소년육성법론 연구를 위한 서설'**, 청소년학연구 제5권제3호, pp.197-230.

조영승(2004), '**청소년육성관련법규의 개편과 청소년육성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제3호, pp.507-530.

조영승(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청소년육성제도의 여성가족부 이관추진에 대한 정부태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3권제5-2호, pp.221-264.

조영승(2008),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살펴본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에 관한 근본법제의 검토방향**', 청소년계 대토론회,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료집 08-S02.

조혜영(2007), **청소년학의 특성과 연구방법론의 과제**, 청소년학연구방법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편, 교육과학사.
진은설 · 임영식(2009),'**청소년활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6권제4호 pp.211-234.
천정웅 · 김정주(1999), '**청소년활동의 정책적 특성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제6권제2호, pp.101-122.
최형임 외(2012), '**청소년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9권제1호 pp.23-45.
Alasdair Maclntyre(1984), **After Virtue**, 이진우(1997) 옮김,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Louis E. Raths, Merrill Harmin, Sidney B.Simon(1978), **Values and Teaching**, 정선삼·조성민 역,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철학과 현실사.
NYWAC(2003), **National Youth Work Development Plan 2003-2007**.Ireland
Mark Smith(1988), **Development Youth Work,** Open University Press, Milton Keynes Philadelpia.
Stenphen. F. Hamilton & Mary Agnes Hamilton(2004), **The Youth Development Handbook**, Sage Publications.

* * * *

주제발표 2

청소년활동 현장이 기대하는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

김종국 (송파청소년수련관 관장)

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청소년분야에서 새로운 학회들이 창립되었다. 한국청소년시민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에 이어 오늘 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탄생한다. 참 환영할 일이다. 학회 명칭의 신선한 차별화가 학회의 운영방향을 예고하는 것 같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청소년 분야가 새로운 영역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체된 상황에서 유독 연구 분야는 기존의 학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분명한 것은 다양화되는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다른 영역이 정체된 상태에서 학회만 자꾸 분화되는 것이 과연 청소년정책이나 현장, 연구 분야에 있어 어떤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창립 목적은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교내외 타학술 단체와의 교류,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길 바라고 싶다.

돌이켜보면 청소년활동 현장지도자들의 학회활동 진입 장벽은 높았다. 그런데 청소년활동학회는 현장지도자의 참여를 강조한다. 실제 학회가 운영되면 현장청소년지도자가 과연 왜 참여해야 하는지, 참여하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는 연구자의 주제발표에 따른 현장의 의견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토론의 참가나 아니면 학술대회가 있을 때 청소년시설의 장소 제공 또는 객석을 채우는 역할이나 하는 건 아닌지 반문해보기도 한다. 이것은 그동안 청소년활동 현장과 학회의 진정한 파트너십이 미흡했던 탓에 기인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역사가 길지 않아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그러므로 청소년지도자에게 열려있는 학회를 표방하는 청소년활동학회에 좀 더 많은 현장지도자들이 학회활동에 참가하여 후배지도자들에게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청소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기대를 갖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함께 해나가는 길이 쉽지 않기에 뜨거운 선배들의 열정이 청소년활동학회를 통해 앞장서 나간다면 후배지도자들도 믿고 따라가며 함께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근래 들어 청소년활동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의 향학열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뜨겁다.

금년부터 시작된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이어 내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활동학회의 탄생은 우리나라 청소년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대하는 바를 크게 한다. 앞으로 청소년활동학회는 기존 청소년관련학회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학 학문의 발전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론과 실제는 유리(遊離)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활동학회는 청소년활동 현장과 긴밀한 연계와 협력 속에 이론과 실제가 하나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과 연구가 하나가 되는 학회로서 청소년활동 현장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청소년행정을 관장하는 부서가 바뀌어 왔다. 어느 한 때는 '청소년'이라는 간판을 걸고 제법 힘을 쓰던 시대도 있었고, 어느 한 시절은 독립부처이다가 또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규모가 줄어들기도 하고, 수시로 바뀌며 마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우리 청소년분야의 실정을 알고서도 변변하게 대처 한 번 하지 못하고 견뎌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학회는 현장의 아픔을 대변해주고, 때로는 행동으로 앞장 설 수 있는 말 그대로 활동학회의 이름이 갖는 의미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청소년활동학회는 현장밀착적이며 실용적인 학회가 되길 기대한다.

2. 청소년분야의 문제점

1991년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해 청소년관련학과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많은 대학에서 청소년관련학과가 설립되었으며, 청소년시설과 단체도 증가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인 요구도 매우 확대되었다. 청소년학의 역사가 이제 막 20여년이 지나 청년으로 성장한 지금 전국 30여개 대학과 대학원에 청소년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청소년학 학자의 수도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각 대학은 설립 이념과 목적, 정부의 청소년육성정책과 시대의 흐름 등을 반영하여 예비청소년지도자교육을 실시하여왔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 각 대학이 청소년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은 매우 많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복지관련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다양한 청소년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배출한 일이다.

그 사이에 청소년관련학회는 한국청소년지도학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시민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가 창립되었다. 이 학회들은 그동안 청소년학 정립의 노력과 더불어 청소년분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 하였다.

그동안 국가주도로 추진해왔던 청소년육성정책도 2013년에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원년이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청소년분야가 거듭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하나 씩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청소년학이 교육학이나 평생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과는 분명히 다른데 어떤 부분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그런지 정체성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인접학과의 이론을 짜깁기해놓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김영호(2012)는 청소년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주장하였고, 김민(2007)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학적 체계가 정립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청소년학 자체가 관련 학문의 성숙과 범위의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화되기보다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근거하여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연구자체가 도구화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1991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학과 설립이후 지금까지 청소년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이 무성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이광호(2010)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 까지 청소년활동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의한 범위와 분류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변변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한다. 또한 청소년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청소년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학교교육이나 공교육 대 청소년활동'의 관계를 청소년에 대한 커다란 공교육의 틀에서 '학교교육 대 학교 밖 청소년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다양한 교육형태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생활관리 능력함양'을 주요목표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중심의 활동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청소년활동이 전개되면서 어떠한 효과성을 개개인에게 주고 있다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활동이 수요자인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도자 모두에게 호평받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활동의 전개목적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필요성 그리고 활동의 효과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권일남 · 오해섭 · 이교봉, 2010),

청소년학계는 강대근(1981)을 시작으로 권일남(2011)까지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청소년을 바라볼 때 그리고 실행할 때 청소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보다 근원적으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이란 개념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교육학적인,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도 필요하다(김영호, 201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의 혼란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따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청소년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다.

셋째, 범청소년분야 대동단결의 결집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보호·복지시설협회, 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청소년관련학생회,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분야의 지도자, 교수, 학생, 공무원 등의 연합모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합 모임을 통해 청소년분야의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통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는 각 분야별 별도로 모임을 갖고 있다.

넷째, 적정 규모의 청소년육성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저서는 안 될 주요한 과제이므로 청소년 예산은 현재 결과성 예산이라기보다 미래 투자성 예산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청소년기관 운영예산 부족 또한 심각하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 측면에서의 충분한 재원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관련 예산은 아직 국가 예산의 0.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고, 민간부문의 투자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청소년관련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 청소년분야의 모든 학회와 협회, 그리고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몇 년 전 서울시내 100여개 복지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서울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여 복지관 당 1억원의 예산 증액을 확보한 적이 있다. 그저 순수하기만 한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도 본연의 업무와는 벗어난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복지관의 사례를 따라서 활동을 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운영들이 일부 열악한 수준에 있으며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운영적자를 줄이고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성열준 외, 2011).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중 시설과 입지환경이 좋은 일부 청소년시설과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몇몇 소도시들을 제외한 청소년활동 현장은 운영예산 부족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이 매우 힘들다. 최근 청소년활동 현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해 운영비를 마련을 위해 수익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본래의 운영목적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시설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문화센터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을 좌절하게 한다.

여섯째, 정부 소관부처 간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고 안정된 정책의 수행과 동시에 각 부처 간에 산발적으로 행하는 청소년정책 및 행정이 체계적으로 분권화되고 관계 부처의 협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보고의 자리에서 정부 산하의 38개부처에서 청소년사업이 산발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총액이 약 1조 8천원이나 된다는 한 연구자의 놀라운 발표는 오히려 오늘날 통합적인 청소년정책과 행정의 부재라는 측면의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였다.

일곱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산업분야와 임금 격차가 점차적으로 벌어지니 그게 더 큰 문제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들이 갖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불만은 처우문제로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의 보람과 긍지를 반드시 키워줘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정규직 직원들의 보수도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대우를 받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을 위한 특별사업에 종사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지도사배치, 대안학교 등의 직원들은 더욱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현장의 모든 청소년분야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문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좀 더 좋은 청소년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분야에 직장을 갖기 위한 예비지도자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처우문제는 기필코 개선되어야만 한다.

다음 신문기사는 청소년지도자를 더욱 절망하게 한다. “동부화재가 대졸 신입사원 연봉에서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연봉 액수만 4천700여만원에 달해 보험권의 새로운 ‘신의 직장’으로 떠올랐다. 11월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 빅4의 대졸 신입 연봉은 동부화재가 세전 기준

4천6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4천580만원), 삼성화재 · LIG손해보험(4천300만원)의 순이었다. 동부화재 신입 연봉이 삼성화재보다 300만원 이상 많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삼성'하면 모든 업계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다는 상식을 뒤집는 결과다. 전체 금융권 평균 신입 연봉인 3천만원 중반 대보다 1천만원 이상 높다"[1]. 똑같이 대학을 졸업해도 보험업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서글픈 현실이다.

여덟째, 청소년단체의 조직이 열악하다. 청소년단체의 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협력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몇몇 규모가 큰 청소년단체를 제외하고는 조직 자체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규모가 큰 청소년단체들도 갈수록 단원수가 감소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의 청소년단원 지도교사 확보 곤란, 청소년인구 감소와 주5일수업제에 따른 학교의 토요특별활동과 가족여행이나 체험활동의 증가 요인들도 청소년단원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차별화도 미흡하다.

그밖에 청소년단체나 시설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목표와 수련목표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단체나 시설들 간의 상호 협조체계와 연합체계를 구축하여 공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또한 청소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청소년 중심의 행정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와 시설에서는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중심의 실질적인 지도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성열준 외(2011).

그동안 청소년분야 현장의 문제에 관한 연구가 종종 있었다. 맹영임(2010)의 청소년시설 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미 많은 청소년활동 현장지도자들이 제기했던 내용들이 연구를 통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자의 직업만족수준은 근로환경(2.98점), 직업의 안정성(2.85 점), 복지후생(2.69점), 임금(2.56점) 영역에서 평균(3.0점) 이하이다. 청소년지도자의 월평균 급여는 175만원이고, 현재 시설에서의 근무 연수는 평균 4.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문성의 평균점수는 소명의식 차원에 대한 평균이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만족수준은 근로환경(2.98점), 직업의 안정성(2.85점), 복지후생(2.69점), 임금(2.56점)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 둘째, 표준임금체계 마련 및 공동적용이 필요 셋째, 직무표준화 작업이 필요 넷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의 재조정 및 제도화가 필요 다섯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내용의 다양화·전문화가 필요 여섯째,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 일곱째, 청소년지도자공제회 설립·운영이 필요 여덟째, 청소년지도현장 확대가 필요 아홉째, 청소년지도자 전문가 검증 및 모니터링이 필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자의 가칭 '훈련휴가제'(안식년, 안식월)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박영균 외(2012)는 청소년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1) 연합뉴스, 2012. 11. 20

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향 모호성 둘째, 청소년시설운영자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 부재 셋째, 청소년활동에서 프로그램 중요성 부재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화 구현 미미 다섯째 청소년시설(수련시설, 이용시설)간의 관계 재조명 여섯째,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학교교육과정 이해 부족을 지적하였다. 그밖에 노후화된 수련시설의 리모델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로 첫째, 청소년시설의 목적, 개념설정 및 장단기 운영계획 수립 둘째, 청소년시설운영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탐색 셋째, 청소년시설운영을 위한 청소년시설-지역사회중심 운영전략 수립 넷째, 청소년시설운영 다각화를 위한 지원합리화 요구노력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대한 미래지향적 과제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해결방안은 대략적으로 청소년활동 현장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장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관련 학회는 물론 정부나 지자체, 청소년활동현장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3.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학회가 필요한 이유의 핵심은 학회가 청소년현장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청소년활동 현장지도자들은 현장과 학계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동안 현장과 학계가 서로 제 갈 길을 가기에 바빴던 이유이기도 하다.

청소년관련법이 제정되고 청소년활동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이 구축되면서, 학회의 역할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존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뿐 아니라 새로운 운영 방향이 모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학회의 과거 역할이 걸음마 수준의 청소년활동 현장을 뛰게 만들게 하는 조력자 역할이었다면, 앞으로 청소년학회는 좀 더 잘 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트랙을 깔고,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활동방향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소년현장과 학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장이 발전하려면 학계의 발전이 있어야 하고, 학계의 발전이 있으려면 현장의 발전이 있어야 서로 상생하게 된다. 상생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학회가 잘한다면, 현장에서 학계를 “학계가 현장을 알아?” 학계에서는 현장에 “현장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라며 서로 깎아 내리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위상을 높여주며, 현장도 학계의 쓴 목소리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학회가 현장을 위해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첫째, 학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는 물론 함께 뛰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이슈를 크게 반영하고, 단기간 만들어진 정부주도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로드맵을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청소년활동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학회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현장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청소년활동현장에서 학회는 감시자의 역할과 함께 활동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구와 행정의 효과성, 활동의 접근과 홍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을 연구해야 한다.

셋째, 학회와 현장전문가들의 학술적 교류가 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회는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다. 학회는 연구자가 주 구성원이다. 그런데 청소년분야는 현장전문가가 중요하다 보니 다른 학회에서도 학회 목적에 현장전문가들을 참여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활동학회 역시 현장전문가들의 참여를 개방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학회가 출범하고 나면, 학회의 주 구성원이 대부분 연구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학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학술지 발간과 학술대회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학회는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하기에 학회의 구성이나 운영, 학술 연구 등에 있어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 전문가들이 학회의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현장전문가들의 연구 활동 참여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연구 능력이 미흡한 현장전문가가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현장 전문가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지원하거나, 연구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세미나 등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는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가 서로 팀을 이루어서 청소년 실천 현장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학회와 현장이 진정한 학술적 교류의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권역별 중심의 현장회원 중심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연구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방법론과 통계분석 등을 학회가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청소년활동학회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장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청소년활동 정책을 추진력 있게 실행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현장의 작은 외침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건의사항 등을 규합하고 대의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매개체로써 학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통한 학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청소년활동 현장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장지도자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 영역별로 좀 더 나은 방향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신규 청소년시설의 운영이 시작될 때 각 영역별로 컨설팅 전문가그룹이 자문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관 운영, 프로그램개발, 지도자역량개발 등의 관하여 분야별로 현장전문가와 학계가 그룹을 구성하여 현장의 요구에 따라 컨설팅을 시도하여야 한다.

둘째, 학회와 현장지도자와의 공동 워크숍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필요에 의해 일부 학회와 현장지도자들과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소년활동학회가 앞장서서 정기적으로 현장지도자들과의 워크숍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관련분야의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나가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현장과의 교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할 수 있는 안들을 도출해 그것을 이론의 바탕위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학회와는 다른 좀 더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며고 진보적인 그래서 현장의 모순을 들춰내는데 눈치 보지 않는 그런 학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셋째, 청소년학 관련 교재를 다양하게 집필해야 한다. 국내학자들의 다양한 청소년학 저서가 많이 출판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프로그램개발론과 청소년인권론 등은 교재가 한 권 뿐이라서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넷째, 뉴거버넌스[2] 시각에서의 청소년행정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뉴거버넌스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행정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행정구조의 세 가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청소년행정조직의 관료적 계층에 의한 정책추진 모델보다 외부 정책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직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수평적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는 공공 영역이 사적 영역과 엄밀히 구분되어 정부 주도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던 전통적인 모델과는 달리 공적·사적 간의 양자 공존에 의한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셋째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상과 설득과 타협이 주요 정책결정 스타일로 부각되어야 한다(천정웅·오해섭·김정주·김민, 2011). 청소년활동학회가 정책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청소년행정을 주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국제학술대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현장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알리고 외국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담당지도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새로운 이론과 세계적 경향에 맞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제시로 담당자들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역할에 대한 접근과 로드맵,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매년 한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씩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예를들면 2013년은 청소년지도자, 2014년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2015년은 청소년시설 개선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

2)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 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 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 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 비영리, 자원봉사 등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출처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학회에서는 최고 수준의 '청소년활동가(지도자)'양성과정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료자에 한하여 베스트 청소년활동마스터로의 명예와 자격을 부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현장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청소년활동 현장을 위한 연구주제

청소년활동 발전을 위해 청소년활동학회가 기존의 청소년관련학회와 중복된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차별적으로 접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라는 명칭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학회의 연구는 청소년활동 현장과 긴밀한 연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학회가 가져야 할 철학, 방향, 연구의 주제나 내용 등이 기존의 학회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시설들이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듯이 청소년활동학회도 특성화된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청소년활동 현장에 근거하고 연결되는 연구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학회의 연구자들은 교수 또는 청소년관련 연구소(원)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청소년활동학회에서는 교수뿐 아니라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야 본래의 의미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에 참여하는 주 연구자들을 일정 부문 현장의 청소년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집중 연구하며 현장의 청소년지도자의 의견이나 자문을 듣는 방식이었지만 학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청소년지도자가 비록 연구사업에 미숙하거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충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연구의 방식들이 끊임없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은 모두 학회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대외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접근과 결과들이 초기부터 드러나야 할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활동학회의 창립시기부터 차별화된 접근을 통한 연구내용을 청소년분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활발한 현장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기존의 청소년관련 연구들은 매우 거시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이나 이론,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청소년활동학회에서는 청소년활동 현장의 문제에 대한 접근의 시각과 방향이 지속가능한 생태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한계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를 제시해본다.

첫째, 청소년학의 학문의 정체성의 확립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외국에는 청소년학이라는 학문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관련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분야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정의해주기를 바란다.

둘째, 청소년관련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관련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 글로벌시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환경의 변화, 청소년활동 현장의 변화 등에 따라 이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개발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아울러 학문의 융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인접 학문과의 교류에 대한 고민과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학, 경영학, 철학, 사회학, 문화학 등의 인문학적 접근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밖에 사회적 요청에 따른 청소년직업교육, 청소년리더십개발, 청소년과 지역사회개발 등의 과목들도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과목이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대표적인 기관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의 지역 네트워크와 지역에서의 소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경우 지역활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영역보다 더 폐쇄적이며 일상적인 관계와 소통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른 영역인 시민활동, 마을공동체, 복지, 문화 예술 등과의 소통과 연계가 매우 미비하다. 이는 향 후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성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는 물론 변화의 근거들을 찾아내고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역할수행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지점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이들은 청소년활동관련 대표기관이며 기관들은 과연 청소년정책, 청소년 활동 그리고 청소년 현장과의 관계를 통한 현장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현장 그리고 지도사의 일상패턴과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현장에서의 집단무의식, 집단문화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은 청소년활동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는 현장 지도자들의 일상패턴(일상의 문화)는 어떠하고 소통의 방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 청소년분야의 문제와 성장을 동시에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기관운영의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시설과 단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다. 대도시와 지방간의 공간적 제한에 따라 정보교류가 힘든 점이 많고, 또한 청소년활동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은 만능 일꾼의 역할을 하다 보니 휴일을 잊어가며 정말 바쁘게 지낸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청소년시설운영에 대한 상세한 업무매뉴얼과 프로그램 특히 처우 관련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처우문제나 근무조건은 천차만별로 각각 다르고 공유조차가 힘든 부분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하여 청소년기관 운영에 중심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싶다. 단순히 처우문제들은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이 교사와 비슷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교원의 보수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현장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 왔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

일곱째,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단순한 경험으로서의 현장 실습이 아닌 청소년관련학과 전공자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준비와 학교의 교육은 어떻게 연결하고 준비되어야 하는가 등에 관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과 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갈수록 청소년지도사의 배출이 더 증가하지만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청소년시설과 단체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더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사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목적사업과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청소년지도사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는 굳이 청소년관련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청소년지도자로서 아무 지장없이 활동하는 걸 많이 보게 된다. 아무리 큰 청소년단체나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용 정원에 의하여 불과 몇 명의 청소년지도사만 배치되면 나머지 인력은 청소년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현재 청소년분야의 엄연한 현실이다. 굳이 모든 직원을 청소년지도사로 선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육성 시각을 협소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어우러져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발전되어 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대학은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종국, 2004). 청소년단체나 시설은 청소년학 전공자를 우선 취업시킴으로써 청소년분야가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처럼 전문영역임을 널릴 알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5. 우리나라 학회의 현실

다음은 '그들만의 리그된 학술지'[3] 라는 제목의 한 일간지에 실린 신문기사이다. 이 신문기사는 우리나라 학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활동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청소년활동학회가 창립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 현장의 버팀목이 되어 앞으로 청소년분야에서 인정받는 학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에 대학교수 같은 철밥통이 또 있을까. 교수의 기본은 연구와 교육임을 부인하지 않을 터. 학교에서 매달 또박또박 나오는 월급 외에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교수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논문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전국 대학의 교수 수는 6만여 명. 그런데 학회 수는 7600여 개이고 학술지 수는 무려 5000여 종에 달한다. 얼추잡아 교수 8명이 모여 학회를 만들고 12명이 모여 학술지를 발간하는 셈이다. 난립도 이런 난립이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정부는 1998년부터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학술지 평가제도를 시행했다. 정부가 정한 정부의 기준에

3) 왕상한 서강대교수, 중앙일보 2012. 11. 10

맞춰 학술지를 재단했다. 학술지가 이 규격에 맞으면 '등재지(또는 등재후보지)'라는 합격증을 붙여 주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금을 줬다. 등재지에 실린 논문의 개수로 교수를 평가하고 대학 지원사업을 심사했다.

그 결과는 쪼개기로 이어졌다. 정부 지원을 더 받으려는 교수들의 탐욕은 학회를 쪼갰다. 업적을 부풀리기 위한 학자의 비양심은 논문을 쪼갰다. 몇 년을 고생해 수준 높은 논문을 쓰는 사람은 바보였다. 그 시간에 함량 미달의 논문을 그것도 여러 개로 쪼개고 이를 여러 개의 학술지에 나눠 실으면 훨씬 뛰어난 교수로 평가받았다. 끼리끼리 모여 이름만 다른 중복 학회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타냈다. 허접스러운 학술지를 논문 탈락률 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세탁, 등재지로 둔갑시켰다. 학술지 발간은 그 자체가 권력이 됐다. 논문을 쓰기 위한 노력보다 논문을 싣기 위한 로비가 필요해졌다. 논문 게재권을 가진 학회 임원은 말 그대로 권력자다. 말 통하는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봐줘야 할 교수의 논문 심사를 맡겼다.

국정감사에서까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부랴부랴 실태 파악에 나선 한국연구재단은 소수 연구자가 모여 각종 불법행위로 등재지를 만들고 자기 사람 논문을 실어 연구성과를 조작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학술지 평가제도를 정부가 아닌 학계 자율평가로 전환하고, 등재지만 되면 똑같이 배분해 주던 예산을 우수 학술지와 소외 · 신생 · 지역 학술지 지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배경에서 내려졌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특히 인문학계의 반발이 크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학문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란다. 인문학의 핵심 가치가 다양성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1350개가 넘는 인문학 학회 가운데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인위적 다양성이 과연 없을까. 인문학에 지출된 정부 예산은 2007년 1108억원에서 2012년 1597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의 경우 개인 연구 지원예산만 670억원이고, 공동연구비는 1234억원. 저술 출판, 명저 번역, 인문학 대중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은 135억원이다. 인문학 분야 교수 수가 1만여 명이니까 1인 평균 2000만원 이상 연구비가 지원된 셈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들만의 잡지를 다양성을 이유로 무조건 지급했던 묻지마 지원을 무한정 계속해야 한다고 난리다.

논문을 실을 학술지에까지 정부가 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야 할까. 오직 등재지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수천 종의 학술지가 300만원씩 똑같이 지급받았다. 이제 이 돈을 우수 학술지와 소외 · 신생 · 지역 학술지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다. 10년 이상 지원해도 도무지 발전이 없는 학회지를, 그 모든 문제점에도 무한정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등재지만 되면 무조건 주던 지원금 제도는 지금 그대로 두고 우수 학술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라는 주장을 본다.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보통 학회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창립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존속한다. 청소년활동학회도 당연히 청소년학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고, 연구는 사회와 청소년기관, 그리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어야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야하고, 시대정신을 읽으며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회는 청소년활동지도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워주는 것은 물론 청소년지도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해야하며, 청소년계의 문제에 대한 의식 공유를 통한 사회활동에 앞장 서야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관을 위한 컨설팅과 지도자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슈퍼비전을 줄 수 있어야한다. 이와 같이 학회가 해나가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다. 이러한 일들을 펼쳐나가기 위해 학회의 본질을 올곧게 지켜가길 기대한다.

6. 나오며

청소년활동학회는 청소년활동현장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학회가 학계와 현장에 서로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면서 학회와 현장이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고리 역할과 청소년활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학회지에 연구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청소년활동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 학회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학회의 목소리가 청소년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현장이 목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장은 늘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나 지자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학회가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청소년지도자들이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성열준 외, 2011). 또한 많은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은 그동안 학회가 청소년정책이나 활동에 관하여 문제 제기와 비판만 할 뿐 대안이나 이에 다른 행동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아쉬웠던 점은 현장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 현장이 요구에 부응하는 학회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학회는 학회의 이름처럼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학회로 활동하길 바라고 싶다.

앞으로 청소년활동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학회의 위상 또한 높아져야 한다. 끊임없는 청소년활동분야의 연구를 통해 훌륭한 청소년정책과 연구 성과를 거두어 청소년활동학회가 청소년정책 수립의 정부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 적어도 학회가 정부 청소년정책의 파트너가 될 때 비로소 학회의 존재가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학술대회 초대장의 초대의 글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현장청소년지도자의 지도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활동의 전문성 확대라는 과제해결에 앞장서는 실천의 장이 있어야 한다는 많은 분들의 조언을 참고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이 살아야만 다른 청소년영역도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지론에 따라 현장과 학계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교역할이 청소년활동학회를 통해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활동학회는 청소년활동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온 학계, 청소년활동현장 그리고 교사, 학부모 등 모든 사람에게 청소년활동을 이해시키고 전문성을 유지하며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고자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청소년활동분야 학계와 현장의 하모니'가 지속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권일남(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보고서',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권일남 · 오해섭 · 이교봉(2010), 청소년활동론, 공동체.

김 민(2007), '한국청소년학의 학문공동체 형성과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영호(2012), 청소년 활동정책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종국(2004), "대학의 청소년학 교육현실과 나아갈 방향", 청소년과 수련활동 연구논문집, 제3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맹영임(2010),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영균 외(2012), 청소년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열준 · 강세현 · 김정일 · 이복희(2011), 청소년지도방법론, 양서원.

연합뉴스, 2012. 11. 20.

이광호(2010), '한국 사회 청소년사업과 정책의 위기와 과제',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 제3호.

천정웅 · 오해섭 · 김정주 · 김민(2011), 청소년활동론, 양서원.

중앙일보, 2012. 11. 10.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정관(안)

01부

종합토론

▸ 청소년육성 및 활동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

▸ 청소년활동 현장이 기대하는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

안권순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 활동현장을 위한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

박찬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 * * * *

종합토론 1

청소년육성 및 활동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

안권순(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오늘날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등으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과 보호, 교육, 전문적인 지도 및 연구 등을 위한 정부의 청소년정책, 대학에서의 청소년 지도자 양성,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의 청소년관련 연구, 각종 시설과 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보다 전문성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과 청소년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육성 및 활동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를 해주신 김영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호 교수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오늘의 발표가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의 긍정적인 변화와 바람직한 정책으로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이에 토론자는 **청소년육성 및 활동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첨언 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육성은 1990년 전후에 서양에서 확립된 교육영역이다. 19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학교교육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청소년육성'이 넓은 의미의 교육의 한 영역으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교실붕괴,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교육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청소년육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991년 12월 31일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육성은 본질적으로 청소년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간화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각종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도덕적 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더불어 청소년의 복지증진이 청소년육성의 핵심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그러므로 청소년육성정책은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은 수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1980년대까지는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에게 독립성을 부여하지 못했으며 문제 중심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야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이고 조장적인 행정으로 전환하였고, 1991년에는 그 동안의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관하여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1. 청소년육성정책전담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

1) 내무부(1945~1964)
- 청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산발적 규제
- 미성년자보호법(1961.12.30)의 금지행위 규정이 근거

2)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내무부장관 치안국 보안과, 1964~1977)
- 청소년 '선도, 지도, 육성, 보호, 교정 대책강구, 문제 중심의 소극적 행정

3) 청소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1977~1983)
- 청소년 '선도, 지도, 육성, 보호' 종합대책 시도, 문제 중심의 소극적 행정

4) 청소년대책위원회(문교부 청소년과, 1983~1984)
- 청소년업무를 문교부 정책의 일부로 취급

5) 청소년대책위원회(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1985~1987)
- 청소년 '선도, 지도, 육성, 보호' 종합 기획 시도, 문제 중심의 소극적 행정

6) 청소년육성위원회(체육부 청소년국, 1987~1989)
- 청소년 '보호, 육성, 선도, 지원에 관한 조정·총괄' 시도, 여전히 문제 중심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함
- 청소년육성법(1987.11.28)의 선언적 규정이 근거

7) 청소년육성위원회(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1990~1993)
- 선도, 지도, 보호, 육성, 교정, 지원 등을 '청소년육성'으로 개념 및 내용 정립, 문제청소년 중심에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조장적 행정으로 전환
- 조정기능(총리)과 총괄기능(장관)의 구분·명시
-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0.6.27) 및 청소년 기본법(1991.12.31)이 근거

8) 청소년육성위원회(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문체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사무국, '97.7), 1994~1998
- 청소년육성 중 청소년보호업무 별도설정, 청소년보호법 제정시행(1997.7.1)

9) 청소년육성위원회(문화관광부 청소년국)+(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98.2), 1998.2~2005
- 청소년보호업무를 따로 분리, 상위부서로 이관

10) 국가청소년위원회(2005~2008)
-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유해 매체물 유통 규제,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유해환경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조사·단속,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방지, 〈유익환경 진흥계획〉 수립 시행, 청소년의 복지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선도·보호, 청소년 보호 조사 연구, 대국민 교육 홍보,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및 시민운동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11) 청소년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산하, 2008~ 현재)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

2.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1997)

-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 청소년보호 및 선도
-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 교류 확대지원
- 국민 참여 확산 및 추진체제 강화

3.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

-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 국제화·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

4.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2003~2007)

-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 주 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조성

-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확산

5. 제 4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2008~2012)

- 청소년 활동 기반 보강
- 청소년복지와 인권 향상
-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청소년정책 인프라 구축 강화
- 청소년 정책 조정평가 기능 강화

청소년이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 추구,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 삶을 영위하며 내일의 주역으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 함양, 건강한 정신과 체력, 건전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으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자질과 능력 있는 청소년을 배양하는데 있다. 청소년 육성정책은 이런 일련의 대 전제하에서 진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정부주도하에 청소년 정책 사업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협의하여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 공·사의 역할 분담들이 확실시하여 서로에게 떠맡기는 식의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 앞으로는 청소년복지와 육성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일반 청소년과 다를 바 없는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며, 적정한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육성정책이 일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문제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정책적 반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하는 중앙 행정조직의 개편이 지나치게 잦아 일관된 청소년 육성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금껏 제대로 된 성과 없이 표류하다시피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 실패하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좀 더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정책의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각 부서들의 특징적 업무를 청소년 육성이라는 발전적 목표 아래 하나로 묶어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변화 특히 정권 교체시기에 청소년육성과는 의미 없는 조직의 변화에 청소년육성정책이 희생되어선 안 될 것이다.

청소년활동 현장이 기대하는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

안권순(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균형적인 발달과 능동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와 적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을 전국의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기반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및 수련거리의 부족과 학교 중심 교육제도에 따른 제약 등으로 대다수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청소년활동 현장이 기대하는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 주신 송파청소년수련관 김종국 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장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오늘의 발표가 청소년정책 입안자, 관련 행정가, 활동가 및 부모, 청소년지도자, 학교의 교사, 교장, 지역사회 인사들 모두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청소년활동학회의 연구들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이에 토론자 본인의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몇 가지 첨언 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Ⅰ. 들어가는 말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의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정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발현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청소년기에 다양한 현장 활동의 경험은 개인의 완성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능동적 인간의 완성에 기여하고 규칙을 지키며 공정성을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involve)하고 행(doing)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체험한 후 체험을 공유하고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세계를 새롭게 인식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점차 사회화 과정에 낙오되거나 능력의 부합됨이 없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이 여가활동 속에서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심신단련, 취미계발, 사회봉사, 자아실현 등의 인성을 도야하는 실천 활동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지식교육과 함께 필수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식. 기능과 같은 수단적 가치를 배양하는 데 그치고 있는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 전인적 인간이라는 종국적 가치를 체험하는 학습활동으로써 청소년의 고유영역 활동인 학업, 근로 등의 영역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의 적응능력을 효율적으로 함양할 수 있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나 가정의 일상 생활권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 풍토, 자연, 역사, 등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연과의 대응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켜 심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II.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한계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련시설 기반조성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며,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이나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장려, 기타 청소년관련 사회운동 등 청소년들의 생활상의 여건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함에 있다. 아울러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편리하게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어 여가선용과 휴식, 오락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예체능활동이나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가급적 청소년들이 근거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 과거에 비해 생활권수련시설을 시·군·구 및 지역사회 단위에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를 긍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앞에서 분류한 생활권 시설 및 자연권 시설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는 각급 시설을 정비하여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수련실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바꾸거나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특징에 적합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지금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생활권 청소년시설을 가깝게 접하면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수련시설로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권 수련시설의 경우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중추 센터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자연과의 접촉이 부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미흡한 상태에 있는 반면 오락실,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당구장 등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각종 유해환경의 급증으로 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각종시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지만 모든 유해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문제점을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자의 이해가 부족함을 들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잘 보내기 위한 장소로 인식 할 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두 공간이 효율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수반되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공간에서 활동한 이후의 시간을 유인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본다.

둘째, 예산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 고유의 목적성을 상실하고 있다.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운영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다른 수련관들은 지원이 없어 사회교육강좌나 생활체육 강좌 같은 수익사업에 의존하면서 과다한 에너지를 쏟다 보니 청소년수련시설 본래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안다고 본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특성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흥미가 반감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점차 개선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의 여건과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원기관인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휘, 감독 역할을 수행하면서 운영단체의 자율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지휘, 감독기관에 청소년관련전문가가 없는 것도 청소년활동시설의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직성을 가져온다고 본다.

다섯째,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위치해야 함에도 지역사회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편이 좋지 않아 청소년의 참여를 저하시키거나 이용이나 활용이 낮은 원인이기도 하다.

여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의 낙후성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시설들은 변화무쌍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시설(포켓볼, 댄스실, 보컬실 및 노래방 등)의 형태가 아니라 어른들의 시각에서 설치된 시설(회의실, 강의실 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일곱째,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무관심과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것조차도 편협한 태도를 갖는 것은 청소년들의 적극적 활동 내지는 사회봉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

여덟째, 청소년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청소년지도자의 부족이다. 현재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목적사업의 직원은 평균 수련원 총 정원의 10-20% 정도이다. 적은 운영예산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한다는 압박감은 청소년지도사 1인에게 부과되는 업무를 과중 시켜 능력의 소진과 프로그램의 질적 낙후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학회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4가지 영역에 대하여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Hard ware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민간과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수련관 160개, 문화의 집 205개, 수련원 179개, 야영장 42개, 유스호스텔 115개, 특화시설 6개로 모구 707개이다. 이는 법정 목표치(수련관 61%, 문화의 집 38%)에도 미달하며 국제적으로 볼 때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이나 단지 흥미위주의 장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학습보조적 기능을 수반하는 곳으로 인격성장과 사회화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가급적 가깝게 그리고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안녕과 질서의식의 함양, 사회인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가치의식을 기성세대가 가져줄 때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들 뿐 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증가로 인한 수련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둘째, Soft ware 부분입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청소년활동지원(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공모, 문화활동, 수련활동인증제 및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교류활동 등), 청소년복지(가충,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 다문화, 드림스타트, 급식, 방과후 교실 등), 청소년상담, 청소년건강과 안전 및 인성교육(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강화 등의 프로그램 개발에 청소년이 주축이 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반영이 요구된다.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안)에서는 위와 같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반영되고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Human ware 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자는 2011년을 기준으로 23,535명(1급 1,409명, 2급 14,769명, 3급 7,357명)이다. 이는 청소년인구 약 10,143,000명을 기준으로 청소년지도사 1명당 청소년 430명을 담당해야하는 현실이다.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청소년지도자인 인적자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적자원의 지원을 위한 시도는 대부분 1차적 노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인건비의 상승과 지원이라는 부분의 관심 이외에도 제도적으로 청소년지도자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이끌 수 있도록 업무의 표준화, 인건비의 현실반영, 청소년지도자 공제회 등 청소년지도자의 복리증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Mind ware 부분입니다. 청소년정책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청소년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기반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발제자가 제안한 첫째, 청소년활동학회가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의제개발을 위해 구심점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관련학과 교수 및 현장지도자의 협력모임을 활성화하여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정책개발을 하도록 TF팀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각종 청소년정책 의제개발 등을 개발하는데 적극 참여하며 개발된 의제는 정부에 건의하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Ⅳ. 나가는 말

청소년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조와 조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청소년활동이 부모나 지역사회의 근접거리에서 지원을 얻게 되면 청소년들이 유익한 시설에 쉽게 접촉함으로써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저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들은 획일적이고 고정화된 방법이 아닌 융통적이고 다양한 원칙에 의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학습기회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시설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인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자는 그들을 위하여(for them) 그들 속에서(among them)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through them) 청소년과 함께 사는 근본정신 위에서 지도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를 통한 올바른 심성과 사회성을 계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의 여건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 * * *

종합토론 2

활동현장을 위한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

박찬열(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Ⅰ. 들어가며

청소년활동현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청소년활동가로서 그간 가지고 있던 공허함과 아쉬움이 있다. 활동의 방향성은 올바른 것인지, 단위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개념은 정확한 것인지 등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과 별개로 무거운 짐이자 풀어야 할 숙제였다. 속도와 결과물의 양이 중요한 시기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이지만 청소년활동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활동의 목적과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중요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에서 왜 활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중심축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이론적 토대를 요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1번 인증기준인 참여청소년의 발달특성과 욕구반영은 이론적 배경과 활동과의 연관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활동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 청소년활동학회의 창립 및 학술대회를 맞아 활동현장에서 청소년활동학회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청소년활동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발제문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간 활동이라는 단어가 현장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나 의견을 달리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만큼 학문적 접근과 현장에서의 활용이 거리가 있었다는 반증이며, 공적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특성상 현장에서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다양한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놓고 현장과 학계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활동현장에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지향성을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학계에서도 현장에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만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현장과 학계, 정책당국이 만나는 장이 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 청소년활동에 대한 자기점검 및 객관적 시각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에서의 취약성 중 하나는 활동에 대한 자기점검 및 객관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종종 실무자들이 중간관리자로 직급이 올라가면 자신이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이 누군가에 의해 평가 받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한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활동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에서도 질적인 평가보다는 참가인원 등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하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프로그램개발의 과정도 기관 혹은 개인별로 달라서 체계적이거나 일관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모습이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자기를 점검하고 활동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갖는데 방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활동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끝이 없으며 공모에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컨설팅의 과정을 거치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자연스러우며 필요한 일이다. 지도자들은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뢰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못하는 커다란 장애는 활동현장과 학계가 상당한 간극을 유지해왔고 상대방에 대한 일정수준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상담분야를 예로 든다면 상담가들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전문가들을 통해 수퍼비전을 받으며 자신의 상담기법과 접근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계속해서 점검과 지도를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게 되고 내담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방법도 습득하게 된다. 활동현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과정에서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며 공동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적수준을 높여야 되고 현장의 실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문적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활동현장에는 활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학계에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게 되어 상호간에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활동의 질적성장은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3.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전문성 함양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라고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이다.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정보란 청소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직접적 관계가 있는 정보라기보다는 청소년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와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고 사회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와 다양한 논쟁거리들은 결국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소재들이다. 경제의 침체나 성장도 청소년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대선을 앞둔 주요후보들의 대선공약도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지도자의 삶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정보들은 현장의 활동가들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를 취합해서 제공하고 생산적으로 해석해 내는 전문성이 담보된 기관이 매우 필요하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을 현장의 활동가들의 걸러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창립은 매우 반가운 일이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다.

4. 예비지도자의 체계적인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활동학회의 특징 중 하나는 예비지도자들의 참여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점이다.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동현장의 지도자들의 질적인 성장이 핵심요소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비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을 기하는 것이다.

청소년관련학과에서의 커리큐럼의 정비와 현장실습에 대해 발제자가 제시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지금 당장이 아닌 긴 안목을 가지고 예비지도자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예비지도자와 실습을 지도해야 하는 활동현장에게 이러한 도움은 매우 절실해 보인다. 예비지도자의 양성은 현장지도자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활동현장의 요구와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영역이기도 하다.

Ⅱ. 나가며

이상으로 활동현장을 위한 청소년활동학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으나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는 더 큰 감흥을 안겨준다. 오늘의 학술대회와 창립총회가 청소년활동의 질적성장과 외연확대, 그리고 현장과 학계가 동반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02부

경과보고 및 회칙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 경과보고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회칙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 경과보고

* *

1. 학회창립 발기를 위한 예비모임

- ▸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18:00
- ▸ 장 소 : 명지대학교 본관1458호
- ▸ 참석자 : 권일남, 김태균
- ▸ 내 용 :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창립 예비 모임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칭)를 2011년 12월 1일 등록
  2) 기관코드(8B3381) 발급완료

2. 학회창립 발기 및 준비위원회

(1) 1차 발기준비회의

- ▸ 일 시 : 2012년 6월 29일(금) 18:00
- ▸ 장 소 : 명지대학교 본관1458호
- ▸ 참석자 : 권일남 외 13명
- ▸ 내 용 :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의 창립발기 및 준비위원회 구성
  1) 학회창립 발기 및 준비위원회 구성.
  2) 학회창립 발기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3) 학회정관 초안 심의.
  4)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확정, 학회운영 계획 수립.
  5) 차기 회의 일정.
  6) 기타논의사항

(2) 2차 발기준비회의

- ▸ 일 시 : 2012년 7월 13일(금) 19:00
- ▸ 장 소 : 명지대학교 본관1458호
- ▸ 참석자 : 권일남 외 10명
- ▸ 내 용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정관 수정 및 창립총회 논의

1) 학회창립 발기 및 준비위원회 추가 구성.
2) 학회창립 발기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3) 학회정관 초안 심의.
4)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확정, 학회운영 계획 수립.
5) 차기 회의 일정.
6) 기타논의사항.

(3) 3차 발기준비회의

- 일 시 : 2012년 10월 23일(금) 19:00
- 장 소 : 명지대학교 본관1458호
- 참석자 : 권일남 외 20명
- 내 용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1) 학회창립 발기 및 준비위원회 구성(학계와 현장 추천).
  2) 학회회원 추천(학계와 현장 추천).
  3) 학회정관 초안 수정.
  4)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확정
  5) 차기 회의 일정.
  6) 기타논의사항.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회칙

* *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청소년활동학회(The Korean Youth Activity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에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교내외 타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 거쳐 승인을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성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청소년을 전공한 자나 교육학, 사회학, 복지, 상담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청소년활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초 · 중 · 고등학교의 현직 교원이나 각종 청소년관련 기관, 복지시설, 상담, 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활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3.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자.

제6조(자격) 본 학회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소지자로 청소년현장 경력 3년이상인 자.
2. 준회원은 학사학위 취득한자 또는 석사과정 재학 중인자.
2. 학생회원은 학사과정 중이거나 수료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기관회원은 청소년관련 제반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준회원, 학생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4.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 활동 및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진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 위신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3인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인

제11조(임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사항을 주관 운영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학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칙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추대한다.

제13조(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의 최초임기는 2년, 3년으로 한다.

제4장 기구

제14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임
3.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의결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정수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되,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 결의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회칙에 정한 이사회의 의무
4. 기타사항

제18조(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서 유급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1.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기획위원회: 학회 운영의 전반적 기획
②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학술상의 기획 및 운영
③ 연구위원회: 학회의 전략적 연구프로젝트 기획·운영과 학회 내 연구소모임 운영 지원
④ 홍보 및 대외협력위원회: 학회 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
⑤ 윤리위원회: 연구윤리 확립 및 회원의 연구에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조치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임원회비,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회비)
1. 회비 및 입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2. 임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정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
2. 준회원,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2만원
3. 평생회비는 30만원
4.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10만원
5. 입회비는 2만원

제6장 학술

제23조(학술지) 1. 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청소년활동연구(The Journal of Youth Activity)”로 한다.
2. 본 학회의 학술지는 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4.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한다.
5.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청소년활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다.

제24조(학술회의) 1.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기타 학술발표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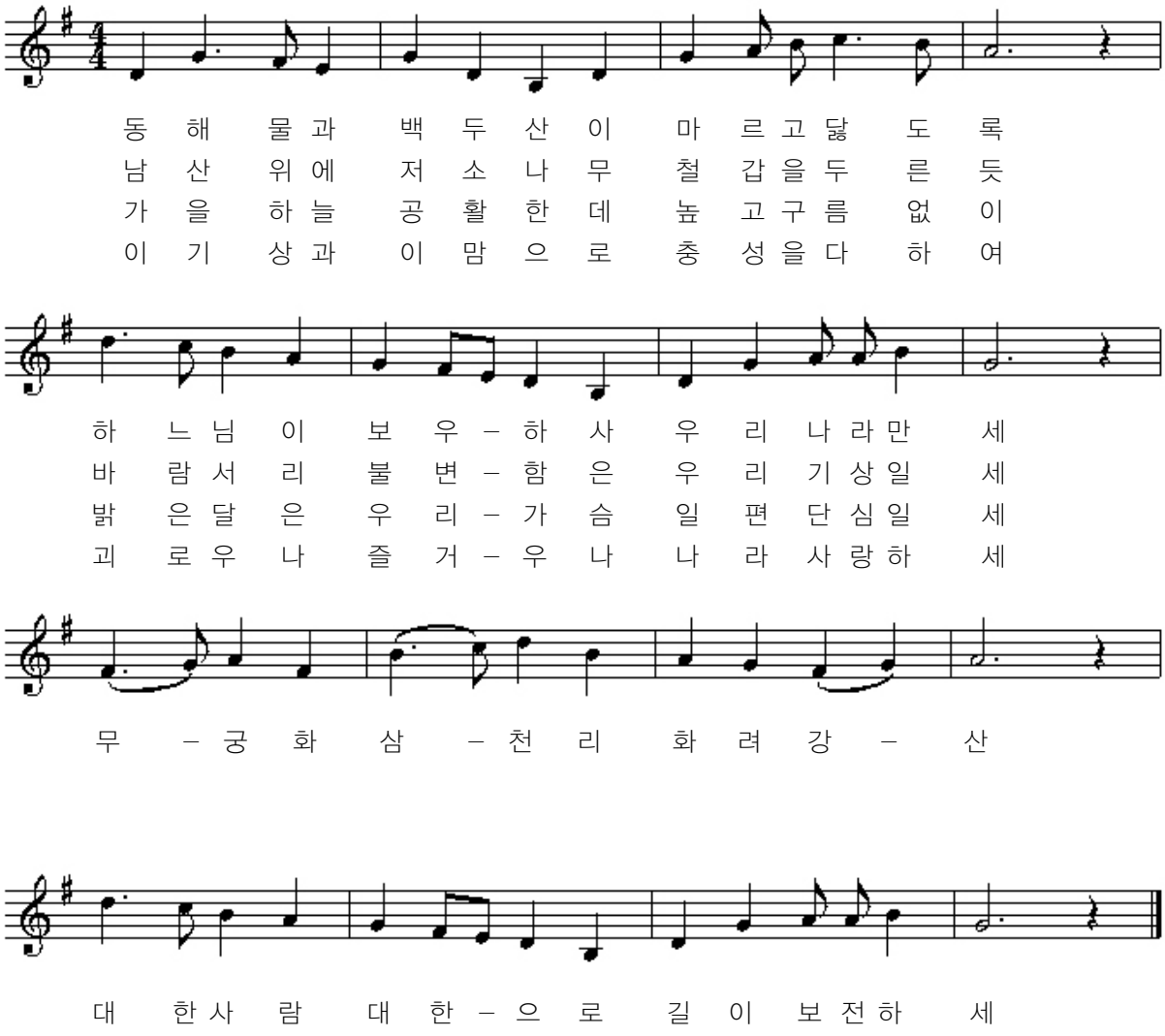
창립준비위원 명단

(가나다순)

구분	번호	이름	소 속	이메일
위원장	1	권일남	명지대학교 교수	choungji@hanmail.net
학계	2	김원희	전)인천광역시교육의원	damo8282@hanmail.net
	3	김윤구	명지대학교 교수	yunkujohnkim@hanmail.net
	4	김정열	총신대학교 교수	ksstem@daum.net
	5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kjh4662@knou.ac.kr
	6	김태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youth1@paran.com
	7	이상경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 전임연구원	91frau@daum.net
	8	이창식	한서대학교 교수	lee1246@hanmail.net
	9	이채식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hope89@dhu.ac.kr
	10	전명순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 전임연구원	synahbro@hanmail.net
	11	전명호	백석문화대학 교수	myongho01@nate.com
	12	정철상	호서대학교 교수	camp@hoseo.edu
	13	조미영	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homyt@gmail.com
	14	최영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ab7851@hanmail.net
	15	최진이	서일대학교 교수	0112783362@daum.net
현장	16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	jun@boramyc.or.kr
	17	김소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sh@kysc.or.kr
	18	김정율	광진청소년수련관	kjy717@korea.com
	19	김종국	송파청소년수련관	kjk5886@hanmail.net
	20	마상욱	사)청소년불씨운동	issacma@chol.com
	21	박찬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smsm2000@hanmail.net
	22	박현동	사)십대지기	phddd@hanmail.net
	23	신경애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ska-do@hanmail.net
	24	신홍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shinsede@koreayouth.net
	25	엄완용	창원청소년수련관	mteom86@hanmail.net
	26	윤여숭	천안시청소년수련관	cmyouth@hanmail.net
	27	이교봉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lkb6799@hanmail.net
	28	이영구	대원학원 이사장	rvd209@hanmail.net
	29	이은경	광명청소년문화의집	orum1318@hanmail.net
	30	장용석	사)아이프랜드	day1122@naver.com
	31	정해숙	사)음악치료협회	felicittas@hanmail.net
	32	조달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choledal@naver.com
	33	하중래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hajr28@hanmail.net

애국가

안익태


동 해 물 과 백 두 산 이 마 르 고 닳 도 록
남 산 위 에 저 소 나 무 철 갑 을 두 른 듯
가 을 하 늘 공 활 한 데 높 고 구 름 없 이
이 기 상 과 이 맘 으 로 충 성 을 다 하 여
하 느 님 이 보 우 – 하 사 우 리 나 라 만 세
바 람 서 리 불 변 – 함 은 우 리 기 상 일 세
밝 은 달 은 우 리 – 가 슴 일 편 단 심 일 세
괴 로 우 나 즐 거 – 우 나 나 라 사 랑 하 세
무 – 궁 화 삼 – 천 리 화 려 강 – 산
대 한 사 람 대 한 – 으 로 길 이 보 전 하 세